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혜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기 성인기의 사회 관계망 크기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전 혜 빈

초기 성인기의 사회 관계망 크기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박혜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전혜빈

인 준 서

전혜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소속의 중요성과 사회적 배제 및 외로움의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이 처한 상황(예컨대, 주거 유동성, 경제적 자원)에 따라 적합한 사회 관계망 크기가 달라지는지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 수준과 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 관계망 크기가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고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넓은 사회 관계망이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작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 296명의 4년제 대학 남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경제적 지위 및 안녕감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들 중 하나인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대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경제적 지위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p=.050$). 그러나 조절 효과는 연구 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 압박감이 높고 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사회 관계망이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경제적 지위, 안녕감

목 차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 이론적 배경	6
1. 사회 관계망	6
2. 시간 압박감	9
3. 경제적 지위	11
4. 안녕감	14
5. 사회 관계망과 시간 압박감에 따른 안녕감	18
6. 사회 관계망과 시간 압박감, 경제적 지위에 따른 안녕감	20
III .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24
IV . 연구 방법	25
1. 연구 참가자	25
2. 측정 도구	26
1) 사회 관계망	26
1-1) 객관적 사회 관계망	26
1-2) 주관적 사회 관계망	26
2) 시간 압박감	27
3) 경제적 지위	28
4) 안녕감	29

5) 통제 변수	30
5-1) 성격 5요인	30
5-2) A유형 성격	31
6) 인구 통계학적 특성	32
3. 연구 절차	33
4. 분석 방법	34

V. 연구 결과 35

1.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35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	38
3. 사회 관계망 크기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42
1)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43
1-1)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43
1-2)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아수용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48
1-3)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율성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48
1-4)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49
1-5)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삶의 목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0
1-6)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개인적 성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0

1-7)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1
2)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2
2-1)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2
2-2)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아수용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3
2-3)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율성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4
2-4)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5
2-5)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삶의 목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5
2-6)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개인적 성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7
2-7)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58

VI. 논의59

1.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	59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6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	16
표 2.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표 3.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37
표 4.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44
표 5.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른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미치는 조건부효과	4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24
그림 2. 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대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의 상호작용 효과	45
그림 3. 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대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의 상호작용 효과	45
그림 4.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대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의 상호작용 효과	53
그림 5. 삶의 목적 안녕감에 대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의 상호작용 효과	5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소속되고자 하는 강하고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Baumeister, Brewer, Tice, & Twenge, 2007). 소속의 욕구(the need to belong)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로서, 정서 및 인지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Baumeister & Leary, 1995).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대체로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반면, 소속의 결핍은 부정적인 정신적, 신체적 결과를 일으킨다. 인간의 기본 동기 및 욕구로서의 소속감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소속감이 결핍되었을 때,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하는지 보고해 왔다(for review, see Baumeister et al., 2007).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인지적 수행력을 저하시키고(Baumeister, Twenge, & Nuss, 2002), 친사회적 행동도 감소시키며(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켰다(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심지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추위를 더 느꼈다 (Zhong & Leonardelli, 2008). 사회적 배제로 인한 위와 같은 부정적 결과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소속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수준과 정서 경험 등을 통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측정하였을 때 상위 10%에 속하는 매우 행복한 사람들(very happy people)은 상대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적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적 교류를 위해 사용하였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어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Diener & Seligman, 2002). 즉,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 맺음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지지적인 관계(supportive social ties)의 수와 안녕감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문제시되는 관계(problematic social ties; 예: 사생활 침해, 이용, 약속 불이행, 갈등 혹은 분노 유발)의 수는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Rook, 1984). 즉, 문제시되는 관계의 수가 많을수록 안녕감 수준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며,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안녕감에 끼치는 영향이 강력함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여대생 308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의 6.5%를 설명할 때, 대인관계 문제는 우울의 29.1%를 설명하였다(박경, 2003). 즉, 대인관계 문제는 여성의 우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하고 있다(e.g., Holt-Lunstad, Smith, Baker, Harris, & Stephenson, 2015; Turner, 1981; Uchino, 2006; for review, Baumeister et al., 2007; Baumeister & Leary, 1995).

전술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고립 및 배제가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e.g., Holt-Lunstad et al., 2015; Turner, 1981; Uchino, 2006). 그러나, 개인이 처한 상황 및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과 같은 개인차에 따른 선택적인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이에 따라 개인의 안녕감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본 연구들

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구체적으로, 개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합한 사회적 관계 유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 수준과 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인의 안녕감을 높이는 사회 관계망 크기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삶이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빠른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은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에 시달리고 있다(Bertman, 1998; Weber & Jaekel-Reinhard, 2000). Stephen Bertman(1998)은 이러한 속도 경쟁문화를 ‘Hyper Culture’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바쁜 현대인의 삶을 잘 대변하는 또 다른 신조어는 타임 푸어(time poor)이다(Schulte, 2015). 타임 푸어[*Overwhelmed: How to work, love, and play when no one has the time*]의 저자인 Schulte는 만성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며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시간 압박을 경험하며,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은 ‘빨리 빨리’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강준만, 2010). 국내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43명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과 한국 사람의 특성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친근한(friendly)’ 다음으로 ‘급한(hurry)’이 빈도 수 2위를 차지하였다(유민봉, 심형인, 2013). 이러한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 빨리’ 문화는 한국인이 시간 압박을 만연하게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통계청(2014)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대 국민 중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가 71.3%였으며, 84.1%가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요컨대, 현대 한국 사회는 시간 부족과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피곤한 사회이다.

이러한 시간 압박은 개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Szollos, 2009). 보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을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Roxburgh, 2004), 낮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부적 정서를 보고하였다(윤정, 김정섭, 2017). 이렇듯 시간 압박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시간 압박이 삶의 측면 중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발달 단계 상 대인관계를 확장시키는 시기에 속하는 20대의 청년층(권석만, 2004)을 포함하여 현대 한국인들은, ‘인간관계 다이어트’, ‘인맥 다이어트’, ‘관태기’ 등의 신조어가 대변하듯이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기를 꺼리며 의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고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사회 관계망 축소가 일어나는 이유가 높은 시간 압박감 때문인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 및 자원을 요한다(Falci & McNeely, 2009; Oishi & Kesebir, 2012). 즉, 친구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시간과 물질적 자원을 요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넓고 얇은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좁고 깊은 사회적 관계를 선호한다(Kim, 2015).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자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따른 전략적인 사회 관계망 유형을 검증했다(Adams & Plaut, 2003; Kim, 2015; Oishi & Kesebir, 2012).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개인은 상대적으로 넓고 얇은 사회 관계망 유형을 더 지향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좁고 깊은 사회 관계망 유형을 더 선호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에 있어 필요시 되는 자원들

1) 김동욱, 김수연 (2017, April 04). “인간관계 피로감 ‘관태기’에 빠진 청년들”, 동아일보. 김지혜 (2017, September 30). “인간관계에 피로를 느낀다면? ...‘인맥 다이어트’”, 스페셜경제. 이혁 (2017, August 26). “진짜 친구 찾고 싶어요...‘인맥 다이어트’하는 청년들”, 파이낸셜뉴스.

중 경제적 자원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시간적 자원 측면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 관계망 크기가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 수준(시간적 자원 측면)과 경제적 지위(경제적 자원 측면)에 의해 선택되며, 이러한 선택이 적응적 가치를 지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 관계망

사회 관계망은 한 개인이 이루고 있는 타인과의 연결 고리로 정의된다 (Wellman, 2007). 사회 관계망에 대한 연구는 크기(size)와 강도(tie)의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이민아, 2013; Baer, 2010; Falci & McNeely, 2009; Granovetter, 1983; Hill & Dunbar, 2003; Marsden & Campbell, 1984; McPherson, Smith-Lovin, & Brashears, 2006; Pollet, Roberts, & Dunbar, 2011; Roberts, Dunbar, Pollet, & Kuppens, 2009). 사회 관계망 크기는 개인이 이루고 있는 사회 관계망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e.g., 이민아, 2013; Baer, 2010; Falci & McNeely, 2009; Hill & Dunbar, 2003; McPherson et al., 2006; Pollet et al., 2011; Roberts et al., 2009)로 측정되는 한편, 사회 관계망 강도는 정서적 친밀감(emotional closeness)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있다(Marsden & Campbell, 1984; e.g., Pollet et al., 2011; Roberts et al., 2009).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강도를 동시에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e.g., Baer, 2010: $r = -.25, p < .01$; Pollet et al., 2011²⁾; Roberts et al., 2009³⁾). 즉,

- 2) Pollet과 동료들(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 관계망을 세 개의 층(support, sympathy, outer)으로 구분하였으며, outer layer을 다시 친구와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각각 층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과 크기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outer layer의 친구와 가족 유형에서 모두 $-.319(.01)$, $-.205(.05)$ 와 같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3) Roberts와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라 small, medium, large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정서적 친밀감을 10개의 수준에 따라 각각의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적 친밀감 수준이 2와 같이 낮을 때, 사회 관계망이 큰 large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small과 medium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컸으며, 정서적 친밀감 수준이 10과 같이 가장 높을 때, 사회 관계망이 작은 small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large와 medium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컸다.

한 개인이 사회 관계망에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와 정서적 강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Roberts et al., 2009), 사회 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강도는 약해지는 반면, 사회 관계망 크기가 작을수록 강도는 강해진다(Dunbar, 2014). 이에 따라 사회 관계망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a) 넓고 얇은 사회 관계망(broad social network with weak ties):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넓은 사회적 관계에 걸쳐 배분하는 것, (b) 좁고 깊은 사회 관계망(small social network with deep ties):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소수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Oishi & Kesebir, 2012).

전술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 관계망의 넓은 크기는 곧 사회 관계망의 약한 강도, 사회 관계망의 좁은 크기는 곧 사회 관계망의 강한 강도로 이어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의 사회 관계망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현 사회적 양상에 대하여 가능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하기에 사회 관계망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 관계망 크기는 개인의 성격, 연령, 교육 수준과 같은 개인차 변수에 의해 달라진다. 117명의 네델란드인들을 대상으로 외향성과 사회 관계망의 크기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일수록 사회 관계망 크기가 컸다(Pollet et al., 2011). 한편, 연령에 따른 사회 관계망 크기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85세 이상인 노인 집단이 70-84세 노인 집단보다 사회 관계망 크기가 약 절반 정도로 작았으며, 연령과 사회 관계망 크기 간 상관은 -0.37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Lang & Carstensen, 1994). 이보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대를 확대하여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 관계망 크기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관계망의 크기는 감소하였다(Lang & Carstensen, 2002: $b=-0.07$, $p<.05$). 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사회 관계망 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약 50세를 기점으로 이 전 연령에서는 사회 관계망 크기가 증가하다가 약 50세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

하는 비선형적 양상을 보였다(English & Carstensen, 2014).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관계망의 크기는 컸다(McPherson et al., 2006; Roberts et al., 2009).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 관계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예측 변수로서 기능하는데, Litwin과 동료들은 약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 관계, 친밀감 등을 토대로 다양한(diverse) 집단, 가족형(family) 집단, 친구형(friend) 집단, 이웃형(neighbor/congregant) 집단 및 폐쇄형(restricted) 집단과 같이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Litwin, 2003; Litwin & Shiovitz-Ezra, 2006, 2010). 사회 관계망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다양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사회 관계망 크기가 작고 제한적인 폐쇄형 집단에 속하는 개인보다 신체적 활동 수준이 높았다(Litwin, 2003). 반면에 폐쇄형 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다양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보다 7년 후 사망률이 더 높았으며(Litwin & Shiovitz-Ezra, 2006),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보고하였다(Litwin & Shiovitz-Ezra, 2010). 또한, 만 65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다양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수준이 폐쇄형 집단에 속하는 개인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천의영, 2010).

이러한 결과는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 때에 비하여 클 때,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그 크기가 작을 때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킴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강도가 약한, 즉 넓고 얇은 사회 관계망이 창의성과 구직 활동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이 있다(Baer, 2010; Granovetter, 1983). 반면, 많은 수보다는 친밀한 관계(즉, 좁고 깊은 사회 관계망)의 중요성을 보여준 연구(Chou, Stewart, Wild, & Bloom, 2012)도 존재한다. 또한, 너무 작거나 큰 사회 관계망 모두 높은 수준의 우울과 연관

됨을 보고한 연구(이민아, 2013; Falci & McNeely, 2009)도 있다. 이처럼 어떤 크기의 사회 관계망(넓은 사회 관계망 vs. 좁은 사회 관계망)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긍정적으로 연결되는가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사회 관계망 크기와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2. 시간 압박감

시간 압박감(time pressure)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인지적 측면(time shortage)과 바쁜 속도, 서두름과 같이 불안과 좌절감을 동반하는 정서적인 측면(being rushed)이 포함된다(Szollos, 2009). 즉, 시간 압박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함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태이다. 보다 일반적인 예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해야 할 일을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들을 들 수 있다. 시간 압박은 시간부족감(time shortage), 시간 부족(time famine), 시간 결핍(time deficit), 시간 제한(time crunch), 시간 빈곤(time poverty)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Rudd, 2018; Szollos, 2009; Teuchmann, Totterdell, & Parker, 1999). 이렇듯 시간 압박과 관련된 용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시간 부족 및 압박 현상이 만연함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것일까? 과거에 비하여 현대인들의 노동 시간은 감소하였으며 여가 시간은 증가하였다(for details, see Robinson & Godbey, 1998). 이는 비단 서구 문화권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

이 아니다. 통계청에서 1999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한국인의 생활 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국민의 필수시간(수면, 식사, 건강관리에 사용한 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의무시간(일, 학습, 가정관리, 이동시간 등과 같이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통계청, 2016).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만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필수시간은 1시간 2분이 증가하고 의무시간은 42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개인적 시간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시간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개인 시간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나,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지각한다(Schulte, 2015). 이러한 사회 현상에 주목하여,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시간 압박을 높게 지각하는 개인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하였으며(Robinson & Godbey, 1998), 우울 수준 또한 높았다(Roxburgh, 2004).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울을 포함한 31개국의 대도시에서 사람들의 걸음걸이 속도, 우체국의 일처리 속도 및 은행 시계의 정확도를 통해 삶의 속도를 측정하였을 때, 삶의 속도가 빠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으며,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 위험 행동인 흡연을 하는 비율 또한 높았다(Levine & Norenzayan, 1999). 그리고 시간 압박감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한편, 국내에서는 시간 압박감보다는 여가 시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e.g., 김경식, 이루지, 2011; 김종순, 오세숙, 윤소영, 2016; 조미라, 2016; 차승은, 2011). 일례로 20-40대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여가 시간의 충분도와 여가 비용의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 및 행복 수준 간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가 있다(김종순 외, 2016). 연구 결과, 여가 시간이 충분할 때

여가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행복 수준도 높았다.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간 압박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시간 압박감이 낮은 개인들은 행복 수준이 높을 것이라 추론 가능하다.

보다 직접적으로 대학생 493명을 대상으로 시간 압박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고 부정 정서는 높았다(윤정, 김정섭, 2017). 그러나 자유재량시간은 삶의 만족도와 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유재량시간보다는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시간 압박감 수준이 그들의 행복과 더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요컨대,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감이 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정서가와 같은 심리적 건강에서부터 사망률과 건강 위험 행동과 같은 신체적 건강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3. 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란 소득으로 측정되는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지위 및 직업으로 측정되는 직업적 지위를 포괄하는 통합 지표”이다(Dutton & Levine, 1989, p. 30: Adler, Boyce, Chesney, Cohen, Folkman, Kahn, & Syme, 1994에서 재인용). 이렇듯 소득, 교육 수준 및 직업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이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관계 및 건강 행동 등과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을 형성한다(Adler et al., 1994).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원이 풍족한지 혹은 결핍되어 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소득(income), 부(wealth)를 중심으로 경제적 지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고 결핍된 환경 및 상태는 낮은 경제적 지위, 물질적 자원이 풍족한 환경 및 상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지위를 의미한다.

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는 빈곤(poverty; Duncan, Magnuson, & Votruba-Drzal, 2017)이 개인의 심리에 끼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최근 리뷰한 Haushofer와 Fehr(2014)에 따르면, 빈곤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심리적인 안녕감을 다룬 25개의 연구들 중 23개의 연구들에서 안녕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빈곤의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와 부적 정서가 개인의 위험 감수 의사결정과 같은 행동에도 인과적인 영향을 끼침을 실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연구자들은 빈곤이 스트레스와 부적 정서 상태를 야기하며,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근시안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끔 할 것이라 제안하였다(for review, see Haushofer & Fehr, 2014). 즉,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직결되는 한편, 심리적 건강과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제적 환경의 중요성을 다룬 심리학적 이론으로는 생애사 이론(life-history theory)이 있다. 생애사 이론은 진화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가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장 전략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해준다(Kaplan & Gangestad, 2005). 즉,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최적의 전략을 사용하도록 진화한다는 것이 생애사 이론의 골자이다(Stearns, 1992: 박지혜, 설경옥, 김지혜, 2018에서 재인용). 이 때,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 사용하는 전략을 생애사 전략(life-history strategy)이라 일컫고, 이 전략은 느린 전략(slow strategies)과 빠른 전략(fast strategies)으로 구분될 수 있다(Kaplan & Gangestad, 2005; Kim, 2015). 빠른 전략은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현재의 번식에 주로 할당하

는 반면, 느린 전략은 보다 성공적인 번식 가능성을 위하여 현재의 번식을 미루고 개인의 성장과 유지에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할당한다(Griskevicius, Delton, Robertson, & Tybur, 2011). 이러한 생애사 전략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채택되는데, 생애 초기 환경이 불우하고 불확실하였다면,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빠른 전략을 채택하게끔 한다(Belsky, Houts, & Fearon, 2010; Ellis, 2004). 반면,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이익과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느린 전략을 채택한다(Ellis, 2004; Kaplan & Gangestad, 2005).

이러한 생애사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어린 시절 경제적 자원 수준이 개인의 성향 및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e.g., Ellis, 2004; Evans & Kim, 2007; Griskevicius et al., 2013; Griskevicius, Delton, et al., 2011; Griskevicius, Tybur, Delton, & Robertson, 2011; Mittal & Griskevicius, 2014).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개인들의 충동성, 위험 감수 행동 및 만족 지연 능력이 달라진다(Griskevicius et al., 2013).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조건 하에서 자란 낮은 경제적 지위의 개인들은 높은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개인들에 비하여 더 충동적이었으며 위험을 더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만족을 잘 지연시키지 못했다. 또한, 어린 시절의 불우한 경험(즉, 낮은 경제적 환경)은 높은 수준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낮은 스트레스 조절 능력으로 이어지는 등 건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Evans & Kim, 2007; see also Evans, 2004). 이와 같이 물질적 자원이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는가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하였는가는 현재 개인의 건강과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원의 풍족과 부족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더불어 의사결정과 같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사회 관계망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제적 지위와 현재의 경제적 지위 간 상관은 .39에서 .41로 그리 강하지 않았는데 (Griskevicius, Delton, et al., 2011; Griskevicius, Tybur, et al., 2011), 생애사 이론에 토대를 둔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적 지위보다는 어린 시절의 경제적 지위가 심리적 건강, 의사결정 및 행동 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e.g., Griskevicius et al., 2013; Griskevicius, Delton, et al., 2011; Griskevicius, Tybur, et al.,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현재 경제적 자원 수준 뿐만 아니라, 생애사 이론을 기반으로 어린 시절의 경제적 자원 수준이 현재의 사회 관계망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어린 시절의 경제적 지위를 모두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안녕감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하다(e.g., 삶의 만족도, 자기존중감, 통제감, 정서적 균형, 우울 등; Ryff, 1989; Ryff & Keyes, 1995). 그 중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well-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Ryff, 1989). Ryff(1989)는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존 지표들에 이론적 근거가 부족함을 비판하며, 여러 심리학 이론들을 기반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이루는 6가지 차원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은 발달심리학에서 Erikson의 기본적 삶의 경

향(basic life tendencies), Neugarten의 성격의 변화(personality changes), 임상심리학에서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fully functioning person),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6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김명소 외, 2001; Ryff, 1989; Ryff & Keyes, 1995).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6가지 차원은 자아수용성(self 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과 같다. 이러한 6개의 측면들 각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타인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자율성과 통제감을 지니고, 자신의 삶에서 나아갈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개인이 높은 삶의 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김명소 외, 2001; Ryff, 1989; Ryff & Keyes, 1995).

Ryff(1989)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321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지 검증하고, 행복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온 기존 지표들(e.g., 정서적 균형, 삶의 만족도, 우울 등)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요인 분석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이 서로 구별되는 차원이며, 삶의 만족도, 정서적 균형, 우울 등과 같은 행복의 기존 지표들이 이론적 문헌에서 강조된 심리적 안녕감의 측면(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모두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여, 삶의 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 6가지 측면이 구별됨을 더욱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성 높은 25세 이상 성인 1,108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Ryff & Keyes, 1995).

표 1.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Ryff, 1989, p. 1072; 김명소 외, 2001, 부록 1에서 재인용)

차 원	점 수	정 의
자아수용 (self-acceptance)	높은 점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자신의 좋은 점들은 물론 나쁜 점들을 포함한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인지하고 수용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낀다.
	낮은 점수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실망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점에 대하여 괴로워한다;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높은 점수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로운 관계를 갖고 있다; 타인의 행복(welfare)에 관심이 있다; 강한 애정, 친밀감,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다; 대인관계란 주고 받는 것임을 이해한다.
	낮은 점수	타인과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타인에 대하여 따뜻하거나 개방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낀다; 타인과의 중요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타협하려하지 않는다.
자율성 (autonomy)	높은 점수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한다;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한다.
	낮은 점수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대하여 걱정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타인의 판단에 의존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동조한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 (environmental mastery)	높은 점수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복잡한 외적인 활동 계획을 잘 조절한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낮은 점수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주의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적 (purpose in life)	높은 점수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 생활에 목표와 목적이 있다.
	낮은 점수	삶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표나 방향 감각이 거의 없다; 과거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삶에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개인적 성장 (personal growth)	높은 점수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느낀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감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향상됨을 느낀다; 자기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간다.
	낮은 점수	개인적인 침체에 빠져있다고 느낀다; 시간에 따라 성장이나 발전되어 감을 느끼지 못한다;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낀다;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한편, 한국의 성인 남녀 578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이 6개의 차원으로 구별되며, 삶의 질을 측정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지표인 주관적 안녕감(정적 정서, 부적 정서 및 삶의 만족도; 차경호, 200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소 외, 2001). 또한,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몇몇 차원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 6가지 차원이 한국 문화에서도 서로 구별됨을 지지하였다. 더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안녕감에서 삶의 만족도 요인은 .25(자율성)에서 .60(자아수용성), 정적 정서 요인은 .18(자율성)에서 .49(자아수용성), 부적 정서 요인은 -.11(개인적 성장)에서 -.35(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같이 심리적 안녕감 6요인 별로 약한 상관부터 강한 상관까지 다양한 관계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이 주관적 안녕감 3요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제외한 심리적 안녕감의 5가지 차원이 정적 정서를, 3가지 차원(환경에 대한 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성)이 부적 정서를, 2가지 차원(자아수용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종합하면,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은 한국 문화에서도 서로 변별되는 요인들이며, 각각의 차원은 주관적 안녕감 3요인과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 중, 긍정적 대인관계 차원은 미국 대학생들과 달리 한국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차경호, 2004). 대학생뿐만 아니라 20대부터 70대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긍정적 대인관계 차원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김명소 외, 2001).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이 미국 문화에 비하여 한국 문화에서 보다 중요하게 여겨

지는 차원임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 수준과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개인에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사회 관계망 크기가 있을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현재 이루고 있는 사회 관계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대인관계 만족도 문항을 개인의 안녕감을 측정하는 데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5. 사회 관계망과 시간 압박감에 따른 안녕감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 수준에 따라 개인의 안녕감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사회 관계망 크기가 존재하는가? 시간적 자원 측면에서 사회 관계망을 다룬 연구로는 Carstensen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SST)이 있다(Carstensen, 1993; 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 Fredrickson & Carstensen, 1990).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에 따라 자신에게 남은 미래의 시간이 한정적, 제한적이라 지각하여, 자신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서는 이와 같이 나이가 들에 따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는 반면 비교적 먼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발적으로 '가지 치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자발적인 사회 관계망 축소와 친숙한 대상에 대한 선호가 실제 연령의 증가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인지, 혹은 자신에게 남은 미래 시간을 보다 제한적 또는 확장적이라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미래 시간 조망(future time perspective) 수준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Fredrickson &

Carstensen, 1990; Fung, Carstensen, & Lutz, 1999; Fung, Lai, & Ng, 2001). 그 결과, 시간 제한 조건(e.g.,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상황을 점화)에 속했던 미국인 11-29세의 젊은 연령층은 나이 든 성인들과 유사하게 새로운 대상보다 친숙한 대상을 더 선호하였다(Fredrickson & Carstensen, 1990). 이러한 결과는 서구 문화권 국가에서만 아니라 홍콩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Fung et al., 1999). 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미래 시간 조망 수준을 통제 한 후에는 개인의 실제 연령은 친숙한 대상에 대한 선호를 더 이상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Fung et al., 2001). 종합하면,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을 확장적으로 지각하는가, 제한적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 정서적 충만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친숙한 대상을 선호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비록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미래 시간이 얼마나 적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사회 관계망을 살펴보았으나, 현재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시간 압박감은 제한적 미래 시간 조망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래 시간 조망이 제한적인 개인들은 확장적인 개인들에 비하여 시간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정서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Carstensen et al., 1999; Gruhn, Sharifian, & Chu, 2016). 시간 압박감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써, 제한적 미래 시간 조망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해석 가능하다.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시간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적 자원을 배분하기보다는 가까운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에게 시간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인 방안일 수 있다. 요컨대, 높은 시간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넓은 사회 관계망을 가지는 것보다 좁은 사회 관계망을 가지는 것이 손실(예: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실하지

얇은 사람들에게 배분한 시간 및 에너지)을 최소화하고 이득(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필요시 도움을 받을 높은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응적인 전략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 다이어트와 같은 현대 젊은 성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관계망 축소가 높은 시간 압박감에 대처하는 방안일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6. 사회 관계망과 시간 압박감, 경제적 지위에 따른 안녕감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자원 중, 경제적 자원의 측면에서 전략적인 사회 관계망이 존재함을 보여준 연구들이 최근 수행되었다. Oishi와 Kesebir(2012)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넓고 얇은 사회 관계망보다 좁고 깊은 사회 관계망을 가지는 것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을 높여주며,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기에 여러 명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은 경제적 자원과 더불어 개인의 주거지가 옮겨지는 정도(예: 이사 횟수)를 의미하는 주거 유동성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전략적 사회 관계망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거 유동성이 낮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넓고 얇은 사회 관계망을 가지는 것보다 좁고 깊은 사회 관계망을 가질 때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더 높았다. 반면, 경제적 자원이 풍족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주거 유동성 수준에 관계없이 좁고 깊은 사회 관계망을 가질 때보다 넓고 얇은 사회 관계망을 가질 때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고 경제적 조건이 불안정한 가나인들이 좁고 깊은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넓은 사회 관계망을 가

지는 것을 “foolish”라고 여기는 것과 일관된다(Adams & Plaut, 2003). 더 나아가 생애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자원이 풍부하고 안정적이었던 환경에서 자란 성인들은 넓고 얕은 사회 관계망을 좁고 깊은 사회 관계망보다 더 선호한다(Kim, 2015). 요컨대, 전술한 연구들의 결과는 경제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을 경우(즉,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필요 시 자원과 지지를 공유해 줄 수 있는 좁고 깊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임을 시사한다(Adams & Plaut, 2003; Kim, 2015; Oishi & Kesebir, 2012).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다(Falci & McNeely, 2009; Oishi & Kesebir, 2012).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시간 압박감의 수준 및 경제적 지위에 따라 넓은 사회 관계망이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경제적 지위와 시간 압박감 간 관계를 살펴보면, National Population Health Interview Survey 1985~1995년 자료를 통해 시간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와 인구 통계학적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 결과, 높은 소득과 교육 수준을 가진 개인일수록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하였다(Robinson & Godbey, 1998). 더 나아가, 호주, 독일, 미국 및 한국과 같은 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를 더 빈번하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Hamermesh & Lee, 2007). 또한, Rudd(2018)는 시간 압박감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고 누가 시간 부족 현상에 가장 취약한지, 시간 압박감에 따른 결과 및 시간 압박감의 부정적 결과로부터의 안전 장치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였다. 이 중 시간 부족 현상에 가장 취약한 대상들은 맞벌이 부부, 부유한 개인,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사람들이며, 이들은 시간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

람들이 시간 압박감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다.

한편, 시간 자원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높은 시간 압박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넓은 사회 관계망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덜 가져다주기 때문에 좁은 사회 관계망을 가지고자 할 것이라 추론 가능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낮은 지위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사회 관계망 크기가 크며, 좁고 깊은 사회 관계망보다 넓고 얕은 사회 관계망 유형을 가지는 것이 보다 전략적임을 보여준다(Kim, 2015; McPherson et al., 2006; Oishi & Kesebir, 2012; Roberts et al., 2009).

전술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시간 압박을 더 느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이 넓은 사회 관계망을 가지는 것이 덜 어려운 것이라 추론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시간 압박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자원이 조절하는지 살펴본 Roxburgh(2004)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계층은 시간 압박을 더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충분성으로 인해 시간 압박감에 따른 우울 수준이 자원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낮은 계층보다 감소하였다. 즉, 시간 압박감이 우울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풍부한 경제적 자원이 감소시키는 완충 효과(buffering effect)를 보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즉, 시간적 경제적 자원이 모두 부족한 상태)은 넓은 사회 관계망보다는 좁은 사회 관계망을 가지는 것이 보다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즉, 넓은 사회 관계망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적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와 반대로,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서 시간 압박감 수준도 낮을 때(즉, 시간적 경제적 자원이 모두 풍부한 상태) 넓은 사회 관계망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 예상하

였다.

한편,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지위가 높은 상황과 경제적 지위가 낮을지라도 시간 압박감 수준이 낮을 때에는 부족한 자원에 대하여 풍족한 다른 자원이 완충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자원이 모두 풍부할 때보다 넓은 사회 관계망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작고, 두 자원이 모두 부족할 때보다는 넓은 사회 관계망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하였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연구문제. 경제적 지위와 시간 압박감 수준에 따라 넓은 사회 관계망 크기가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가설 1. 경제적 지위가 높고 시간 압박감 수준이 낮을 때, 넓은 사회 관계망이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경제적 지위가 낮고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을 때, 넓은 사회 관계망이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경제적 지위가 높고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을 때와 경제적 지위가 낮고 시간 압박감 수준이 낮을 때, 넓은 사회 관계망이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중간 크기로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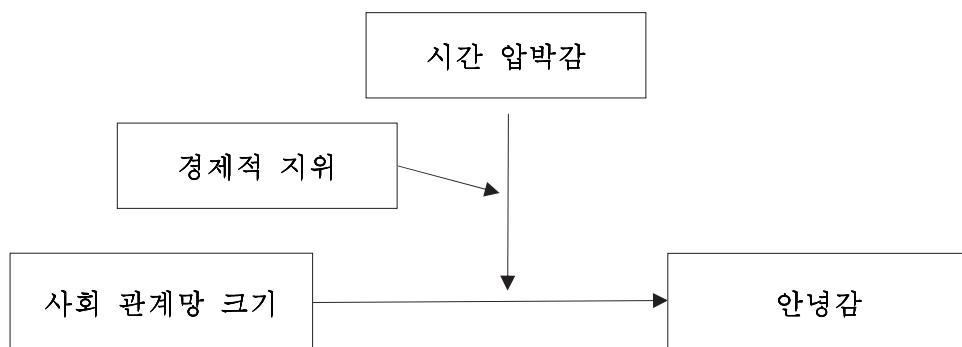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4년제 대학의 남녀 학부생 296명(남성 111명, 여성 185명)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였다⁴⁾. 대학 SNS 커뮤니티에 연구 참가 광고를 게재하고 교내 오프라인 게시판에 광고를 부착하여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2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1.8세였다($SD=2.35$). 연구 참가자들의 재학 학년은 1학년 26%, 2학년 22.3%, 3학년 23.6%, 4학년 24.3%, 5학년 이상 3.7%로 대체로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전공은 사회계열이 31.8%로 가장 많았다.

4)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하여 분석에 필요한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226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에 포함된 모든 문항들에 응답하고 성실성 문항(예시 문항: “나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였다”)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총 328명의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연구 특성 상 불성실한 응답자를 구분하기 모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응답에 걸린 총 소요 시간을 산출하여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자 하였다. 이 때, 응답 소요 시간의 극단치(e.g., 9시간 이상)가 존재하였기에 탈락 기준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두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응답 소요 시간의 왜도가 정상 분포로 여겨지는 한계인 1(Antonius, 2003, p. 67)을 기준으로 탈락자를 선별하였으며, 응답 소요 시간의 상/하 각각 5%를 제외한 총 90%(총 296명)의 응답 소요 시간의 왜도가 .884였다. 즉, 왜도가 1보다 작으면서 자료의 탈락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사회 관계망

1-1) 객관적 사회 관계망

연구 참가자가 실제로 가진 사회 관계망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참가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연락망(예: 전화 및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후, 연구 참가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연락망에 총 몇 명이 속해 있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응답하게끔 한 후, 해당 연락망을 통해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연락했던 사람들의 수를 밝히도록 하였다(예시 문항: ‘지난 일주일 동안, 해당 연락망을 통해 귀하와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연락한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연구 참가자는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연락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 관계망의 객관적 크기가 큰 것이다.

1-2) 주관적 사회 관계망

연구 참가자의 주관적인 사회 관계망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Oishi와 Kesebir(2012)의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Choi(2018)와 Kim(2015)이 구성 및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Oishi와 Kesebir(2012)는 넓고 얇은 관계를 ‘a social network in which you spread your time and resources widely across diverse social connections’, 좁고 깊은 관계를 ‘a social network in which you concentrate your time and resources on a few

very close friends'로 표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Choi(2018)와 Kim(2015)은 개인의 사회 관계망이 넓고 얇은지, 혹은 좁고 깊은지를 물어보는 단일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관계망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회 관계망이 넓은지, 혹은 좁은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현재 어떠한 종류의 대인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의 질문에 6점 척도(1=넓은 대인관계, 6=좁은 대인관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분석에 있어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역채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 관계망이 넓은 것이다. 한편, 일련의 선행 연구들에서는(e.g., Choi, 2018; Kim, 2015; Oishi & Kesebir, 2012) 사회 관계망을 넓고 얇은 관계와 좁고 깊은 관계로 구분함으로써 크기가 넓으면 강도는 알아지는 관계를 가정해왔다. 이러한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해보고자 사회 관계망의 강도를 물어보는 문항을 질문지에 추가하였다(예시 문항: '귀하는 현재 어떠한 종류의 대인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1=깊은 대인관계, 6=얇은 대인관계). 이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관계망의 주관적 강도가 얇은 것이다.

2) 시간 압박감

시간 압박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oxburgh(2004)가 개발하고, 윤정, 김정섭(201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시간 압박감 척도(time pressur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예시 문항: '내가 많은 일을 다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6점(매우 동의한다)까지의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제시되었다. 9문항 중 1문항은 역문항이며('나에게는 나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 분석에는 역채점되어 포함되었다. 시간 압박감 척도에 대한 응답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시간 압박감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Roxburgh(2004)와 윤정, 김정섭(201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9, .74였다. 본 연구에서 시간 압박감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1이었다.

3) 경제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세 개의 지표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먼저 연구 참가자들의 현재 객관적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가계 월 평균 소득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150만원 이하, 9=851만원 이상). 또한 연구 참가자의 현재 주관적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묻는 MacArthur의 10단계 사다리 그림을 제시하였다(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구체적으로, 가장 낮은 사다리 칸인 1단계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사람들이 위치하며, 가장 높은 사다리 칸인 10단계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위치할 것이라 제시하였다. 이 때, 연구 참가자들에게 현재 한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곳의 번호를 선택하게끔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의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Griskevicius, Delton, et al., 2011; Griskevicius, Tybur, et al., 2011)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이 질문지에 포함되었다(예시 문항: '나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연구 참가자는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6점(매우 동의한다)까지의 6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 Griskevicius, Delton과 동료들(2011), Griskevicius, Tybur와 동료들(2011), Kim(2015)의 연구에서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 3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4, .87,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 3문항의 평균

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4) 안녕감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6개 차원(자아수용: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자율성: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환경에 대한 지배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목적: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개인적 성장: '나 자신과 인생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으로 이루어진 총 54개의 문항 중 김명소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최종 선별된 자아수용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에 대한 지배력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및 개인적 성장 8문항의 총 46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으며, 46개의 문항 중 22개의 역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채점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차원에서의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소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6개 차원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6(자아수용), .72(긍정적 대인관계), .69(자율성), .66(환경에 대한 지배력), .73(삶의 목적), .70(개인적 성장)이었다. 본 연구에서 6개 차원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86(자아수용), .85(긍정적 대인관계), .77(자율성), .71(환경에 대한 지배력), .83(삶의 목적), .71(개인적 성장)이었다.

또한, 연구 참가자가 자신의 대인관계에 만족하는지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류승아, 김경미, 한민(2014)이 사용한 단일 문항을 질문지에 포함시켰다(‘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의 대인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연구 참가자는 제시되는 문항을 읽고, 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부터 6점(매우 만족함)의 6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

5) 통제 변수

5-1) 성격 5요인

본 연구는 탐색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상황과 상황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기질적 요인 중 하나인 성격 5요인(the Big Five)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성격 5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며(Hicks & Mehta, 2018), 이 중에서도 외향성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사회 관계망 크기가 더 컸다(Pollet et al., 2011). 이와 같이 성격 5요인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 관계망 크기,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성격 5요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Donnellan, Oswald, Baird, Lucas(2006)가 기존 50-item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IPIP-FFM; Goldberg, 1999)를 20문항으로 단축한 20-item Mini-IPIP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격 5요인은 한 요인 당 각각 4문항씩으로 이루어졌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제시되었다(외향성: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친화성: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성실성: ‘어지러지면 즉각 청소한다’; 신경증: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지성/상상5): ‘상상력이 풍부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번안문은 유

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번안하고 이영란(2006)이 사용한 IPIP-FFM 척도에서 Mini-IPIP에 해당하는 문항 20개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격 5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85(외향성), .73(친화성), .60(성실성), .53(신경증), .79(지성/상상)이었다.

5-2) A유형 성격

A유형 성격(Type A personality)은 경쟁성, 충동성, 과도한 성취 욕구, 시간 압박, 적대감(공격성) 등의 경향이 높은 성격으로 정의된다(Hemingway & Marmot, 1999; Petticrew, Lee, & McKee, 2012). 이러한 A유형 성격에 속하는 개인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경험한다(천성민, 김병준, 2014; Kazmi, Amjad, & Khan, 2008). A유형 성격은 성격 5요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처한 상황, 특히 시간 압박감이 높은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하는 데 있어 안녕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Haynes, Levine, Scotch, Feinleib & Kannel(1978)이 개발하고 Perlman, Hartman, Lenahan(1984)가 사용하였으며, 손여진 등(2001)과 천성민, 김병준(2014)이 번안한 FTA(Framingham Type A Behavior)척도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다섯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성격과 관련된 질문들이며 분석에는 각각 0, 0.33, 0.67, 1점으로 환산되었다(예시 문항: ‘아주 급하게 식사를 한다’). 나머지 5문항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느끼는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들로 예, 아니오의 진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예

5) 성격 5요인 중 다섯 번째 요인에 대하여 학자들 간 용어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사고/상상(Intellect/Imagination) 또는 개방성(Openness),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등과 같다(권석만, 2017; Donnellan et al., 2006, p. 192). 본 연구에서는 Goldberg(1999)의 성격 5요인 분류에 따른 IPIP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요인을 지성/상상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시 문항: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할 때 안전부절 못한다’). 분석에는 각각 0점(아니오)과 1점(예)으로 환산되었다. 따라서 총 합산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A유형 성격 수준이 높은 것이다. 손여진과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성격 유형을 분류한 반면, 천성민과 김병준(2014)은 합산 점수가 0점 ~ 3.99점까지는 B유형, 7점 ~ 10점까지는 A유형 성격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산된 점수를 연속 변수로 처리하여 통제하였다.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1=남자, 2=여자), 연령, 학년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현재 앓고 있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 있는지 예, 아니오의 진위형 문항으로 측정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시간 압박감과 안녕감 수준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e.g., English & Carstensen, 2014; Lang & Carstensen, 2002, Roxburgh, 2004), 지난 한 주가 평소보다 연락이 더 많거나 적었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1=특별히 연락이 적었다, 4=평소와 같이 전형적이었다, 7=특별히 연락이 많았다) 상에 평정하도록 하여,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 끼칠 영향을 통제하였다.

3. 연구 절차

연구 참가 홍보물을 보고 연구 참여에 자원한 4년제 남녀 대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질문지가 제시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먼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명시된 연구 참가 동의서를 읽고, 참가에 동의하면 동의 버튼을 클릭하였다. 그 후, 연구 참가에 동의한 연구 참가자들에 한해 질문지가 제시되었다.

먼저 연구 참가자들에게 시간 압박감 질문지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를 측정하는 질문지가 제시되었다. 그 후, 현재 대인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보는 단일 문항과 심리적 안녕감 질문지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통제 변수인 성격 5요인과 A유형 성격을 측정하는 질문지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와 현재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된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연령, 건강 상태, 지난 한 주간의 연락 빈번도 등)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질문지 작성을 마친 연구 참가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일괄 지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사후설명문을 이메일로 별도 발송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ver3.0(Hayes, 201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신체적 건강, 지난 한 주 간의 연락 빈번도) 및 성격 요인(성격 5요인, A유형 성격) 등을 공변인으로 투입한 후, 심리적 안녕감 6요인과 대인관계 만족도 각각에 대한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SPSS PROCESS macro(Hayes, 2017) model 3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 관계망 크기 2개 지표(주관적 사회 관계망, 객관적 사회 관계망)는 각각 예측변인,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는 조절변인, 심리적 안녕감 6요인과 대인관계 만족도는 각각 결과변인으로 투입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른 안녕감 수준이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 수준과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살펴보는 탐색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SPSS PROCESS macro(Hayes, 2017) model 1을 활용하여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는 모두 평균중심화⁶⁾ 되었다.

6) 평균중심화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추정의 문제를 감소시키며(Aiken & West, 1991), 가설검정 및 회귀계수를 보다 의미있고 실질적으로 해석 가능하게끔 만드는 이점이 있다(Hayes, 2017).

V.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본 분석에 앞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인 사회 관계망의 크기, 시간 압박감, 경제적 지위 및 안녕감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 관계망의 크기를 살펴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연락한 사람의 수인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는 평균 18.2명($SD=13.34$)이었으며, 최소 1명에서 최대 100명이었다.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는 평균 3.22($SD=1.33$)로 넓은 사회 관계망을 가지는 것에 보다 가까웠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인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자면, 시간 압박감의 총합은 평균 36.83($SD=6.57$)점으로 중간 점수인 27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연구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시간 압박감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t(295)=25.76, p<.001$. 가계 월 평균 소득은 '모름'에 응답한 42명을 제외한 254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5.49(약 451-550만원, $SD=2.46$)이었고, 가계 월 평균 소득이 851만원 이상이라 응답한 수는 54명(21.26%)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평균 5.45($SD=1.87$)였으며, 6과 7에 응답한 수가 각각 60명, 61명(총 40.9%)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의 평균은 3.22($SD=1.30$)이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 6요인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결과, 삶의 목적($M=4.21, SD=0.92$), 긍정적 대인관계($M=4.05, SD=0.90$), 개인적 성장($M=4.03, SD=0.69$), 자아수용($M=3.83, SD=0.84$), 자율성($M=3.79, SD=0.73$), 환경에 대한 지배력($M=3.78, SD=0.62$) 순으로 높았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표 2.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96)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111	37.5
	여자	185	62.5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1-10명	104	35.1
	11-20명	103	34.8
	21-30명	43	14.5
	31-40명	26	8.8
	41-50명	14	4.7
	51-60명	2	0.7
	61-70명	2	0.7
	71-80명	1	0.3
	81-90명	0	0
	91-100명	1	0.3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1 (좁은)	29	9.8
	2	63	21.3
	3	85	28.7
	4	68	23
	5	34	11.5
	6 (넓은)	17	5.7
현재 객관적 지위 (가계 월 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5	1.7
	151-250만원	24	8.1
	251-350만원	42	14.2
	351-450만원	29	9.8
	451-550만원	36	12.2
	551-650만원	27	9.1
	651-750만원	25	8.4
	751-850만원	12	4.1
	851만원 이상	54	18.2
	모름	42	14.2
현재 주관적 지위	1 (하위)	4	1.4
	2	13	4.4
	3	31	10.5
	4	46	15.5
	5	49	16.6
	6	60	20.3
	7	61	20.6
	8	19	6.4
	9	7	2.4
	10 (상위)	6	2

표 3.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N=29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341***	1											
3	.040	.019	1										
4	.183**	-.024	-.108	1									
5	.105	-.080	-.084	.713***	1								
6	.171**	-.042	-.025	.597***	.683***	1							
7	.258***	.269***	-.239***	.127*	.175**	.179**	1						
8	.248***	.361***	-.239***	.026	.038	.087	.587***	1					
9	.013	.059	-.074	-.047	-.058	-.091	.337***	.219***	1				
10	.077	.062	-.327***	.124*	.154**	.171**	.656***	.462***	.304***	1			
11	.136*	.117*	-.134*	.012	.025	.035	.579***	.435***	.354***	.611***	1		
12	.182**	.203***	-.186***	-.014	.033	-.008	.516***	.467***	.316***	.435***	.617***	1	
13	.072	.179**	-.138*	.054	.091	.132*	.443***	.516***	.273***	.398***	.215***	.177***	1
M	18.20	3.22	36.83	5.49	5.45	3.22	3.83	4.05	3.79	3.78	4.21	4.03	3.93
SD	13.34	1.33	6.57	2.46	1.87	1.30	0.84	0.90	0.73	0.62	0.92	0.69	1.21
skewness	1.87	0.22	-0.25	0.11	-0.03	0.05	-0.40	-0.38	0.15	0.10	-0.07	-0.06	-0.45
kurtosis	5.97	-0.57	0.12	-1.25	-0.30	-0.80	0.28	-0.26	0.32	0.29	-0.50	-0.14	-0.78

주. 1=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2=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3=시간 압박감, 4=현재 객관적 지위(N=254), 5=현재 주관적 지위, 6=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 7=자아수용, 8=긍정적 대인관계, 9=자율성, 10=환경에 대한 지배력, 11=삶의 목적, 12=개인적 성장, 13=대인관계 성향도

* $p < .05$, ** $p < .01$, *** $p < .001$.

평균 3.93($SD=1.21$)이었다.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의 연령($M=22.62$, $SD=2.48$)이 여성($M=21.31$, $SD=2.12$)보다 많았다, $t(204.24)=4.63$, $p<.001$. 또한 심리적 안녕감 6요인 중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에 대하여 남성의 안녕감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t_{자율성}(294)=3.95$, $p<.001$; $t_{환경에 대한 지배력}(294)=3.44$, $p=.001$; $t_{삶의 목적}(294)=3.55$, $p<.001$; $t_{개인적 성장}(294)=2.31$, $p<.05$. 마지막으로 성격 5요인 중 성실성과 신경증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성실성($M=4.17$, $SD=0.84$)이 여성($M=3.85$, $SD=0.82$)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신경증($M=3.73$, $SD=0.82$)이 남성($M=3.32$, $SD=0.83$)보다 높았다, $t_{성실성}(294)=3.21$, $p=.001$; $t_{신경증}(294)=-4.18$, $p<.001$. 그 외,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경제적 지위 3개 지표 및 A유형 성격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ps>.13$.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측변인인 사회 관계망 크기 하위 지표 간 상관을 살펴보면,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4$, $p<.001$. 즉, 지난 일주일 간 연락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 관계망이 넓다고 지각하였다. 조절변인인 경제적 지위 하위 지표 간 상

관을 살펴보면,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_{\text{현재 객관적 지위, 현재 주관적 지위}}=.71$; $r_{\text{현재 객관적 지위,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60$; $r_{\text{현재 주관적 지위,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68$, $ps<.001$. 이는, 현재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도 높았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가계 월 평균 소득도 높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결과변인인 심리적 안녕감 하위 요인 및 대인관계 만족도 간 상관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s>.21$, $ps<.01$.

둘째, 예측변인인 사회 관계망 크기와 결과변인인 안녕감의 상관을 살펴보면,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심리적 안녕감 6요인 중 자아수용($r=.26$, $p<.001$), 긍정적 대인관계($r=.25$, $p<.001$), 삶의 목적($r=.14$, $p<.05$), 개인적 성장($r=.18$, $p<.01$)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가 넓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6요인 중 자아수용($r=.27$, $p<.001$), 긍정적 대인관계($r=.36$, $p<.001$), 삶의 목적($r=.12$, $p<.05$), 개인적 성장($r=.20$, $p<.001$)과 대인관계 만족도($r=.18$, $p<.01$)가 높았다. 반면에, 심리적 안녕감 6요인 중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지배력은 객관적 사회 관계망 및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ps>.18$. 이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넓고 실제로 지난 일주일 간 연락을 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지배력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안녕감 4요인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대인관계 만족도는 실제 연락한 사람의 수가 아닌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 관계망 크기가 넓을수록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셋째, 예측변인인 사회 관계망 크기와 조절변인인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 간 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 관계망 크기는 시간 압박감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ps>.49$. 다음으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는 현재 객관적 경제적 지위($r=.18$, $p<.01$) 및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r=.17,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현재 가계 월 평균 소득과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가 높았다.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는 경제적 지위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p_s>.16$. 정리하자면, 시간 압박감은 사회 관계망 크기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고, 사회 관계망의 크기 지표 중에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는 경제적 지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일주일 간 연락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높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간 상관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p_s>.08$.

넷째, 조절변인인 시간 압박감과 결과변인인 안녕감 간 상관을 살펴보면, 시간 압박감이 높을수록 자율성($r=-.07, p=.21$)을 제외한 심리적 안녕감 5개 요인($r_{자아수용}=-.24, p<.001$; $r_{긍정적\ 대인관계}=-.24, p<.001$; $r_{환경에\ 대한\ 지배력}=-.33, p<.001$; $r_{삶의\ 목적}=-.13, p<.05$; $r_{개인적\ 성장}=-.19, p=.001$)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았다, $r=-.14, p<.05$. 즉, 시간 압박감이 높을수록 안녕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조절변인인 경제적 지위와 결과변인인 안녕감 간 상관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위 3개 지표는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지배력 수준이 더 높았다(자아수용: $r_{현재\ 객관적\ 지위}=.13, p<.05$; $r_{현재\ 주관적\ 지위}=.18, p<.01$; $r_{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18, p<.01$; 환경에 대한 지배력: $r_{현재\ 객관적\ 지위}=.12, p<.05$; $r_{현재\ 주관적\ 지위}=.15, p<.01$; $r_{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17, p<.01$). 대인관계 만족도는 경제적 지위 중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3, p<.05$.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인 성격 5요인 및 A유형 성격과 주요 변수들 간 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 5요인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향성과 성실성은 심리적 안녕감 6요인과 모

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_s > .19$, $p_s \leq .001$. 친화성은 자율성($r = -.02$, $p = .75$)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안녕감 5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_s > .21$, $p_s < .001$)을 보였으며, 신경증은 자율성($r = -.03$, $p = .64$)과 개인적 성장($r = -.11$, $p = .06$)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안녕감 4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_s > -.14$, $p_s < .05$)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성/상상은 자율성($r = .20$, $p = .001$), 개인적 성장($r = .17$,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종합하자면, 신경증 성격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안녕감 수준이 낮았으며,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및 지성/상상 성격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안녕감 수준이 높았다. 이 중, 외향성과 친화성은 사회 관계망 크기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외향성과 친화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가 넓고($r_{\text{외향성}} = .61$, $p < .001$; $r_{\text{친화성}} = .34$, $p < .001$),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r_{\text{외향성}} = .32$, $p < .001$; $r_{\text{친화성}} = .19$, $p = .001$)도 컸다.

A유형 성격 또한 시간 압박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A유형 성격은 시간 압박감과 정적 상관($r = .55$, $p < .001$), 심리적 안녕감 6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r = -.14$, $p < .05$), 환경에 대한 지배력($r = -.31$, $p < .001$) 및 대인관계 만족도($r = -.12$, $p < .05$)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A유형 성격일수록 시간 압박감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였으며,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 안녕감 및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3. 사회 관계망 크기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가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2, 2017)가 제공한 PROCESS macro의 model 3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즉, 지난 일주일 동안 연락한 사람의 수)와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즉, 사회 관계망이 넓은지 좁은지) 각각을 예측변인으로, 심리적 안녕감 하위 요인 6개와 대인관계 만족도 단일 문항을 각각 결과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조절변인으로는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를 투입하였는데, 이 때 경제적 지위의 3개의 지표 간 상관성이 .597 이상으로 큰 상관관계를 가지며 (Cohen, 1988), 가계 월 평균 소득으로 측정된 현재 객관적 지위에 대하여 ‘모름’이라고 응답한 참가자의 수가 42명으로 결측치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는 현재 주관적 지위와 어린 시절 경제적 지위만이 사용되었다. 두 지표를 각각 z-표준화 한 후 평균 낸 값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경제적 지위 단일 지표로 분석에 포함하였다(e.g., Kraus, Piff, & Keltner, 2009; Piff, Kraus, Cote, Cheng, & Keltner, 2010, 연구 3).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신체적 건강, 지난 한 주 간의 연락 빈번도) 및 성격 요인(성격 5요인, A유형 성격)은 모두 통제하였다.

1)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1-1)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즉, 지난 일주일 동안 연락한 사람의 수)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이 있었다, $b_3 = -0.001$, $p = .050$, $\Delta R^2 = .007$ ⁷⁾ 이에 대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삼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방정식은 아래의 <식 1>과 같다.

$$\hat{Y} = 2.123 + 0.007X - 0.018M + 0.033W + 0.001XM - 0.002XW - 0.004MW - 0.001XMW + (0.199C_1 + 0.030C_2 - 0.491C_3 - 0.038C_4 - 0.023C_5 + 0.249C_6 + 0.277C_7 + 0.192C_8 - 0.149C_9 - 0.010C_{10}) \quad (1)$$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 Aiken & West, 1991; see also Hayes, 2017)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1표준편차 높은 집단(+1SD), 1표준편차 낮은 집단(-1SD)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른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의 단순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를 그림 2, 그림 3 및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그림 2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들에게서는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의 조절효과가

7) 경제적 지위의 3개 지표를 모두 z-표준화 한 후, 평균 낸 값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b = -0.001$, $p = .035$, $\Delta R^2 = .008$.

표 4.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 (Moderated moderation regression analysis for PR)

	Coefficient (B)	SE	t	p
Intercept (Constant)	2.123	.7994	2.675**	.008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X)	.007	.004	1.184 [†]	.066
시간 압박감 (M)	-.018	.008	-2.334*	.020
경제적 지위 (W)	.033	.044	.744	.458
X * M	.001	.000	2.466*	.014
X * W	-.002	.003	-.595	.552
M * W	-.004	.007	-.587	.557
X * M * W	-.001	.000	-1.965[†]	.050
성별	.199	.090	2.208*	.028
연령	.030	.018	1.652	.100
신체적 건강	-.491	.263	-1.867 [†]	.063
전형적 한 주	-.038	.046	-.809	.419
A유형 성격	-.023	.026	-.907	.365
외향성	.249	.047	5.340***	.000
친화성	.277	.050	5.529***	.000
성실성	.192	.050	3.808***	.000
신경증	-.149	.055	-2.698**	.007
지성/상상	-.010	.057	-.179	.858

$R^2=.475$, $F(17, 278)=14.805$, $p<.00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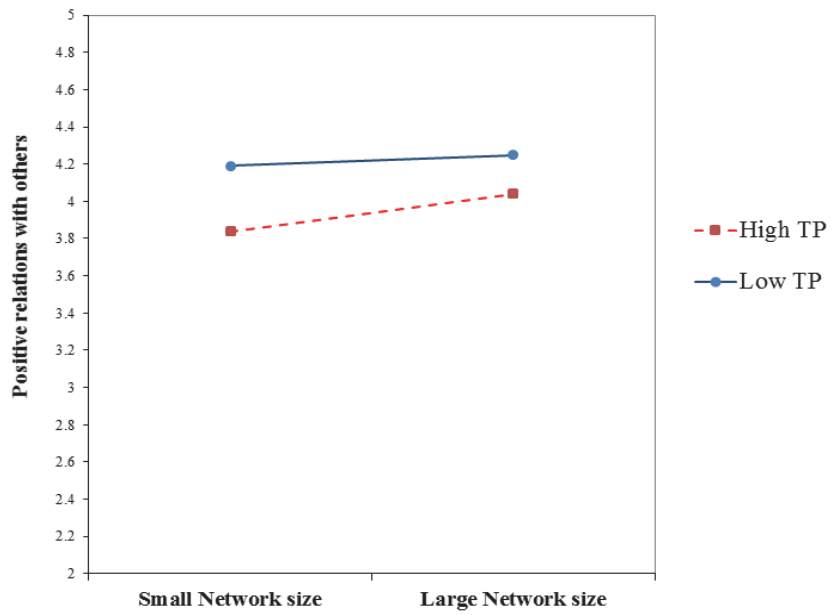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대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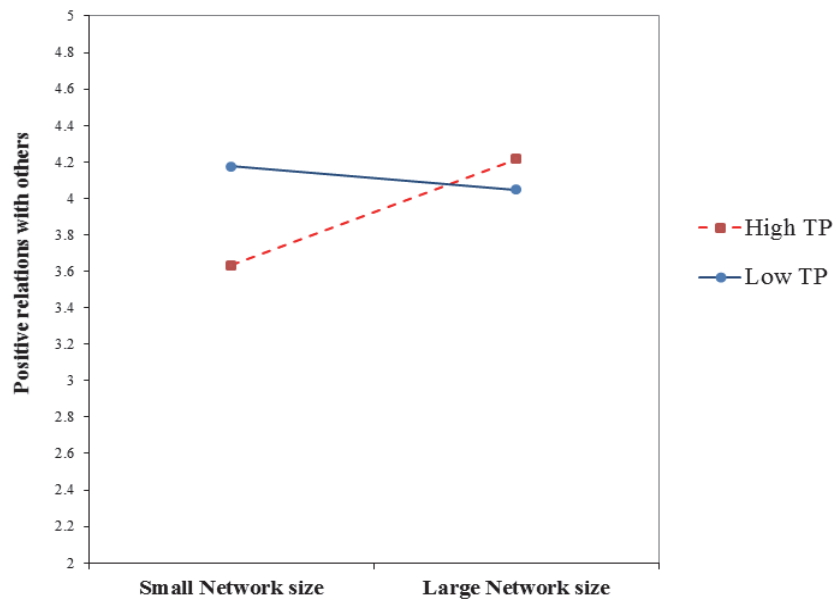


그림 3. 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대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의 상호작용 효과

표 5.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른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미치는 조건부효과 (Moderated moderation analysis: Conditional effects of X on Y at values of the moderators M and W)

경제적 지위 (W)	시간 압박감 (M)	Effect	SE	t	p	95% CI	
						LL	UL
-.917	-6.567	-.005	.008	-.580	.562	-.021	.011
-.917	.000	.009	.006	1.549	.122	-.002	.019
-.917	6.567	.022	.006	3.368	.001	.009	.035
.000	-6.567	-.001	.005	-.248	.804	-.011	.009
.000	.000	.007	.004	1.843	.066	.000	.014
.000	6.567	.015	.005	3.198	.002	.006	.024
.917	-6.567	.002	.005	.477	.634	-.007	.011
.917	.000	.005	.004	1.293	.197	-.003	.012
.917	6.567	.008	.005	1.413	.159	-.003	.018

주. 조건부효과는 두 조절변수의 ± 1 표준편차 수준을 기준으로 한 특정값 선택방법에 따라 추정되었다. (The conditional effects are estimated using a pick-a-point approach using $\pm 1SD$ of the moderators.)

없었다, $\theta_{XM \rightarrow Y} | (W=0.917)=0.000$, $F(1, 278)=0.670$, $p=.414$. 이에 따라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 각각의 주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들에게서는 시간 압박감 수준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라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_{\text{시간 압박감}}=-.022$, $SE=.016$, $\beta=-.167$, $t(51)=-1.359$, $p=.180$; $B_{\text{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006$, $SE=.006$, $\beta=.129$, $t(51)=1.162$, $p=.250$.

이와는 달리, 그림 3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에게서는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의 조절효과(즉, 단순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theta_{XM \rightarrow Y} | (W=-0.917)=0.002$, $F(1, 278)=7.180$, $p=.008$. 이에 따라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시간 압박감 수준을 평균을 기준으로 1표준편차 높은 집단(+1SD), 1

표준편차 낮은 집단(-1SD)으로 구분하여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른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단순 주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지위가 낮으면서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을 때, 객관적 사회 관계망이 커질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B=.022$, $SE=.006$, $t(278)=3.368$, $p=.001$. 반면, 경제적 지위가 낮으면서 시간 압박감 수준이 낮을 때, 객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에 따라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B=-.005$, $SE=.008$, $t(278)=-.580$, $p=.562$.

이는 시간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모두 부족할 때,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서 시간 압박감 수준도 낮을 때(즉, 두 자원이 모두 풍부할 때)와 한 자원이 풍부한 반면 다른 한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객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에 따라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ps>.158$.

다음으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시간 압박감($B=.001$, $p=.056$)과 경제적 지위($B=-.003$, $p=.315$)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⁸⁾, 객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B=.007$, $SE=.003$, $\beta=.101$, $t(284)=2.035$, $p=.043$), 시간 압박감이 낮을수록($B=-.017$, $SE=.008$, $\beta=-.124$, $t(284)=-2.263$, $p=.024$)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경제적 지위는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B=.045$, $SE=.044$, $\beta=.046$, $t(284)=1.016$,

8) 본 논문에 기술된 주효과(main effect) 결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값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1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신체적 건강, 지난 한 주 간의 연락 빈번도) 및 성격 요인(성격 5요인, A유형 성격) 총 10개의 변수가 통제를 위해 투입되었고, 모형 2에는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또는 시간 압박감 또는 경제적 지위가 각각 개별적으로 투입되었다.

$p=.311$.

1-2)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아수용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아수용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0$, $p=.488$, $\Delta R^2=.001$.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아수용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1$, $p=.126$)과 경제적 지위($B=-.002$, $p=.474$)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자아수용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B=.010$, $SE=.003$, $\beta=.161$, $t(284)=2.911$, $p=.004$), 시간 압박감이 낮을수록($B=-.021$, $SE=.008$, $\beta=-.168$, $t(284)=-2.722$, $p=.007$),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B=.156$, $SE=.045$, $\beta=.171$, $t(284)=3.429$, $p=.001$) 자아수용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1-3)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율성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율성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1$, $p=.224$, $\Delta R^2=.004$.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율성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0, p=.805$)과 경제적 지위($B=-.001, p=.807$)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자율성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B=-.001, SE=.003, \beta=-.027, t(284)=-.465, p=.642$), 시간 압박감($B=-.010, SE=.007, \beta=-.089, t(284)=-1.363, p=.174$), 경제적 지위($B=-.050, SE=.042, \beta=-.063, t(284)=-1.182, p=.238$) 모두 자율성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1-4)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0, p=.305, \Delta R^2=.002$.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0, p=.351$)과 경제적 지위($B=.000, p=.834$)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시간 압박감이 낮을수록($B=-.010, SE=.005, \beta=-.111, t(284)=-1.990, p=.048$),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B=.091, SE=.030, \beta=.136, t(284)=3.010, p=.003$)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B=.003, SE=.002, \beta=.058, t(284)=1.158, p=.248$.

1-5)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삶의 목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삶의 목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0$, $p=.508$, $\Delta R^2=.001$.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삶의 목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0$, $p=.438$)과 경제적 지위($B=.001$, $p=.828$)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삶의 목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 ($B=.006$, $SE=.004$, $\beta=.084$, $t(284)=1.524$, $p=.129$), 시간 압박감($B=-.013$, $SE=.009$, $\beta=-.090$, $t(284)=-1.467$, $p=.144$), 경제적 지위($B=.030$, $SE=.051$, $\beta=.030$, $t(284)=.591$, $p=.555$) 모두 삶의 목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1-6)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개인적 성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개인적 성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0$, $p=.815$, $\Delta R^2=.000$.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개인적 성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0$, $p=.880$)과 경제적 지위($B=-.003$, $p=.303$)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

지막으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개인적 성장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시간 압박감이 낮을수록 개인적 성장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B=-.017$, $SE=.007$, $\beta=-.159$, $t(284)=-2.509$, $p=.013$. 반면, 객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B=.004$, $SE=.003$, $\beta=.081$, $t(284)=1.415$, $p=.158$), 경제적 지위($B=.005$, $SE=.040$, $\beta=.007$, $t(284)=.127$, $p=.899$)는 개인적 성장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1-7)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1$, $p=.264$, $\Delta R^2=.004$.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0$, $p=.829$)과 경제적 지위($B=-.010$, $p=.078$)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대인관계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B=-.001$, $SE=.006$, $\beta=-.008$, $t(284)=-.135$, $p=.893$), 시간 압박감($B=-.003$, $SE=.013$, $\beta=-.016$, $t(284)=-.240$, $p=.810$) 경제적 지위($B=.140$, $SE=.073$, $\beta=.106$, $t(284)=1.916$, $p=.056$) 모두 대인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2)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2-1)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7$, $p=.120$, $\Delta R^2=.005$.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B=.000$, $p=.988$), 시간 압박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B=.012$, $p=.006$.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시간 압박감이 1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과 1표준편차 낮은 집단($M-1SD$)으로 구분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를 살펴보면, 시간 압박감 수준이 낮은 개인들에게서는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라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theta_{x \rightarrow y} | (M=-6.567)=-0.034$, $t(282)=-0.647$, $p=.518$. 이와는 달리,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은 개인들에게서는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라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theta_{x \rightarrow y} | (M=6.567)=0.124$, $t(282)=2.824$, $p=.005$. 이러한 결과는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을 때, 주관적 사회 관계망이 커질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주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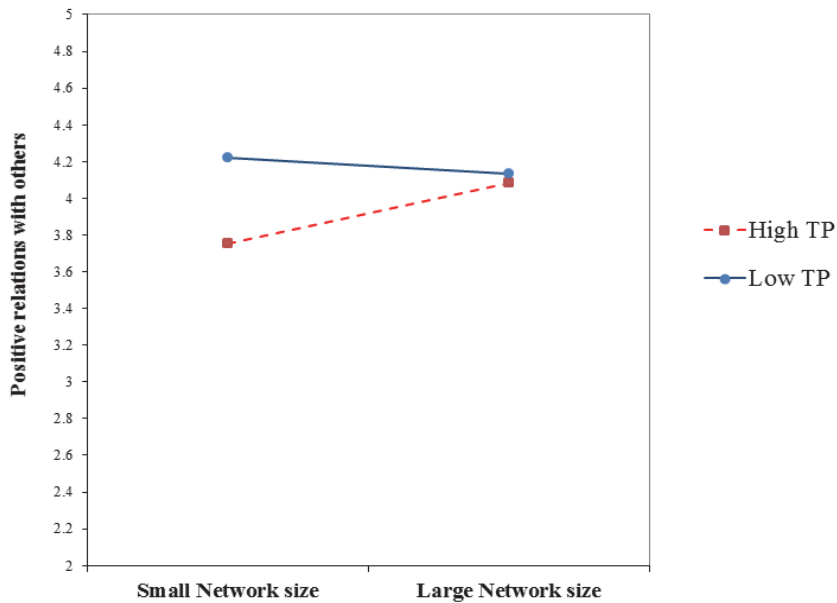


그림 4.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대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의 상호작용 효과

사회 관계망 크기($B=.061$, $SE=.039$, $\beta=.090$, $t(284)=1.566$, $p=.119$)와 경제적 지위($B=.045$, $SE=.044$, $\beta=.046$, $t(284)=1.016$, $p=.311$)는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반면, 시간 압박감이 낮을수록 ($B=-.017$, $SE=.008$, $\beta=-.124$, $t(284)=-2.263$, $p=.024$)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2-2)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아수용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아수용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5$, $p=.344$, $\Delta R^2=.002$.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

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아수용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3, p=.529$)과 경제적 지위($B=.029, p=.388$)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자아수용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시간 압박감이 낮을수록 ($B=-.021, SE=.008, \beta=-.168, t(284)=-2.722, p=.007$),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B=.156, SE=.045, \beta=.171, t(284)=3.429, p=.001$) 자아수용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한편, 주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 ($B=.039, SE=.041, \beta=.062, t(284)=.953, p=.342$)는 자아수용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2-3)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율성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율성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2, p=.632, \Delta R^2=.001$.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자율성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3, p=.411$)과 경제적 지위($B=-.010, p=.745$)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자율성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 ($B=-.061, SE=.037, \beta=-.111, t(284)=-1.639, p=.102$), 시간 압박감($B=-.010, SE=.007, \beta=-.089, t(284)=-1.363, p=.174$), 경제적 지위($B=-.050, SE=.042, \beta=-.063, t(284)=-1.182, p=.238$) 모두 자율성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2-4)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1$, $p=.785$, $\Delta R^2=.000$.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5$, $p=.130$)과 경제적 지위($B=.030$, $p=.182$)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시간 압박감이 낮을수록($B=-.010$, $SE=.005$, $\beta=-.111$, $t(284)=-1.990$, $p=.048$),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B=.091$, $SE=.030$, $\beta=.136$, $t(284)=3.010$, $p=.003$)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안녕감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B=-.033$, $SE=.027$, $\beta=-.071$, $t(284)=-1.222$, $p=.223$.

2-5)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삶의 목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삶의 목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1$, $p=.800$, $\Delta R^2=.000$.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삶의 목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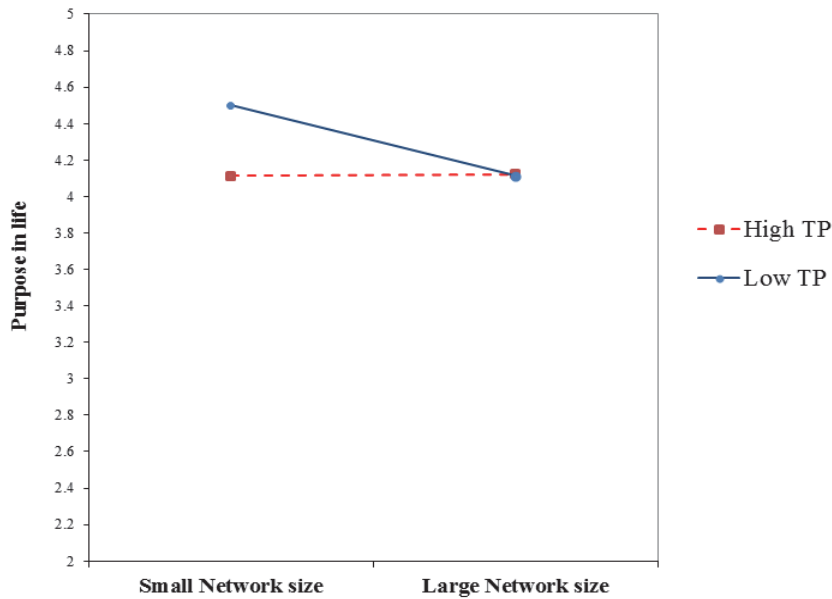


그림 5. 삶의 목적 안녕감에 대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시간 압박감의 상호작용 효과

유의하지 않은 반면($B=-.024$, $p=.527$), 시간 압박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B=.011$, $p=.023$.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시간 압박감이 1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과 1표준편차 낮은 집단($M-1SD$)으로 구분하여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5를 살펴보면,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은 개인들에게서는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라 삶의 목적 안녕감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theta_{x \rightarrow y} | (M=6.567)=0.003$, $t(282)=.066$, $p=.947$. 이와 달리, 시간 압박감 수준이 낮은 개인들에게서는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라 삶의 목적 안녕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theta_{x \rightarrow y} | (M=-6.567)=-0.145$, $t(282)=-2.428$, $p=.016$. 이러한 결과는 시간 압박감 수준이 낮을 때에만, 주관적 사회 관계망이 커질수록 삶의 목적 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B=-.055$, $SE=.044$, $\beta=-.080$, $t(284)=-1.240$, $p=.216$), 시간 압박감($B=-.013$, $SE=.009$, $\beta=-.090$, $t(284)=-1.467$, $p=.144$), 경제적 지위($B=.030$, $SE=.051$, $\beta=.030$, $t(284)=.591$, $p=.555$) 모두 삶의 목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2-6)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개인적 성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개인적 성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5$, $p=.255$, $\Delta R^2=.003$.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개인적 성장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7$, $p=.057$)과 경제적 지위($B=.039$, $p=.187$)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개인적 성장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시간 압박감이 낮을수록 개인적 성장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B=-.017$, $SE=.007$, $\beta=-.159$, $t(284)=-2.509$, $p=.013$. 반면, 주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B=-.010$, $SE=.035$, $\beta=-.019$, $t(284)=-.282$, $p=.778$), 경제적 지위($B=.005$, $SE=.040$, $\beta=.007$, $t(284)=.127$, $p=.899$)는 개인적 성장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2-7)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4$, $p=.598$, $\Delta R^2=.001$. 이에 따라,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 각각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B=.003$, $p=.666$)과 경제적 지위($B=-.013$, $p=.804$)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가 각각 대인관계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주관적 사회 관계망의 크기 ($B=.083$, $SE=.064$, $\beta=.091$, $t(284)=1.281$, $p=.201$)와 시간 압박감($B=-.003$, $SE=.013$, $\beta=-.016$, $t(284)=-.240$, $p=.810$), 경제적 지위($B=.140$, $SE=.073$, $\beta=.106$, $t(284)=1.916$, $p=.056$) 모두 대인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VI. 논의

1.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의 사회 관계망 크기가 안녕감에 끼치는 영향을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 수준과 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고 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넓은 사회 관계망을 지니는 것이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장 적게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 및 가설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수들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사회 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전반적인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크기가 작은 사회 관계망보다 큰 사회 관계망이 창의성, 구직 활동,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보여준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Baer, 2010; Granovetter, 1983; Litwin, 2003; Litwin & Shiovitz-Ezra, 2006, 2010).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시간 압박감과 안녕감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및 경제적 지위와 안녕감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는,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감이 건강과 전반적인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윤정, 김정섭, 2017; Levine & Norenzayan, 1999; Maslach et al., 2001; Robinson & Godbey, 1998; Roxburgh, 2004)과 빈곤이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Haushofer & Fehr, 2014)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된다.

둘째, 사회 관계망 크기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시간 압박감의 조절효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은 개인들에게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넓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들 중

하나인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시간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좁은 사회 관계망보다 넓은 사회 관계망을 가졌다고 지각할 때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높음, 즉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따듯하며 신뢰로움을 의미한다(Ryff, 1989). 또한, 시간 압박감 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크기가 넓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들 중 하나인 삶의 목적 안녕감 수준이 낮아졌다. 이는 시간적 자원이 풍족한 사람들의 경우 넓은 사회 관계망을 가졌을 때 오히려 삶의 목표를 계획하고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 신념인 삶의 목적 안녕감(Ryff, 1989)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전술한 결과들은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Carstensen, 1993; Carstensen et al., 1999; Fredrickson & Carstensen, 1990)을 기반으로 예측하였던 바, 즉 미래 시간 조망 수준이 제한적인 개인들이 정서적 충만감을 얻기 위해 가까운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감소되는 것과 같이,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넓은 사회 관계망보다 좁은 사회 관계망을 가졌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누릴 것이라 예상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셋째,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문제로, 시간 압박감과 더불어 경제적 지위가 사회 관계망 크기와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결과,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에 대한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 시간 압박감 및 경제적 지위의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고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사회 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가 안녕감에 대한 사회 관계망 크기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만, 그 효과의 방향이 가설과 상반됨을 보여준다.

종합하건대,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고 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즉, 시간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모두 부족할 때), 넓은 사회 관계망이 안녕감에 미치

는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 바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자원이 모두 부족한 사람들은 좁은 사회 관계망보다 넓은 사회 관계망을 가질 때, 안녕감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시간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 중 적어도 한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진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라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 수준이 다르지 않았다.

비록 전반적인 연구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으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가설과 일치하지 않은 조절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우연적인 것으로 여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관계는 시간 및 경제적 자원을 소비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일종의 자원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간주한 사회학자들의 관점에 그 바탕을 둔다(e.g., Portes, 1998, Putnam, 2009). 사회적 자본의 이론 핵심은 사회적 접촉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즉, 사회 관계망)가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Putnam, 2009).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나 집단소속 여부를 이용하여 가치 있는 경제적, 상징적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재열, 남은영, 2008, p. 179)⁹⁾. 대학생들은 학업 및 취업 준비로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감을 느낀다. 그런데 선행 연구(e.g., Granovetter, 1983)에 비추어볼 때, 취업 준비, 구직 활동에는 좁고 깊은 사회 관계망보다 넓고 얇은 사회 관계망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¹⁰⁾. 즉, 취업 준비와 구직 활동 때문에 시

9)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Putnam이 거시적 수준으로 확장시킨(김상준, 2004) 사회 전반적 수준(societal level),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이 아닌, 개인적 수준 및 미시적 수준의 관계적 사회자본(relational social capital)으로서 정의하였다(이재열, 남은영, 2008).

10) Putnam(2009, p. 26) 또한 그의 저서에서 Granovetter의 관점 및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강한’ 유대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당장 무엇을 손에 넣는 데’ 좋은 반면, ‘약한’ 유대인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Briggs의 지적을 인용하였다.

간 압박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는 좁은 사회 관계망보다 넓은 사회 관계망을 통해 얻는 사회적 자본이 더욱 풍부하기 때문에, 사회 관계망을 넓게 유지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간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회 관계망이 안녕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발달 과업으로 대인관계 확대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권석만, 2004).

한편, 시간 압박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상관없이 삶의 목적 안녕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반면, 시간 압박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넓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목적 안녕감 수준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목적 안녕감이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기와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여 인생의 목표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하였을 때 상승하기 때문에(Ryff, 1989), 시간적 자원이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넓은 사회 관계망을 통해 얻는 이점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통해 얻는 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은 추후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 수준과 경제적 지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비록 연구 결과가 가설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즉,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인 초기 성인기 대학생들에게는 ‘강한’ 유대보다 ‘약한’ 유대(즉, 넓고 얇은 사회 관계망)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에 연구되어 온 성격(e.g., Pollet et al., 2011), 연령(e.g., English & Carstensen, 2014; Lang & Carstensen, 1994, 2002), 교육 수준(e.g., McPherson et al., 2006; Roberts et al., 2009)과 같은 개인차 변수들에서 더 나아가, 시간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사회 관계망 크기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 관계망 크기에 따라 안녕감이 달라진다고 할 때, 이를 시간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조절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학생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때, 좁은 사회 관계망보다 넓은 사회 관계망을 지니는 것이 긍정적 대인관계 안녕감을 고양시켜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와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를 모두 측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둘 간의 상관은 .34로, 높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시간 압박감의 조절효과가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서만 나타나며, 시간 압박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까지 고려된 조절효과는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사회 관계망 크기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서로 변별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문제는 아니었으나, 사회 관계망 크기와 강도 간 관계를 선형적 이론을 토대로 넓고 얇은 관계와 좁고 깊은 관계로 구분한 선행 연구들(Choi, 2018; Dunbar, 2014; Kim, 2015; Oishi & Kesebir, 2012)과는 달리, 사회 관계망의 강도와 크기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 결과, 주관적 크기와 주관적 강도의 상관은 $-.157(p<.01)$, 객관적 크기와 주관적 강도의 상관은 $-.135(p<.05)$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¹¹⁾. 이는 주관적 크기가 넓을수

11) 본 연구에서는 사회 관계망 크기가 넓을수록 관계망 크기 점수가 높아지고, 사회 관계망이 깊을수록 관계망 강도 점수는 낮아지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특, 그리고 객관적 크기가 클수록 주관적 강도를 깊게 지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넓고 얇은 관계와 좁고 깊은 관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가?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크기와 강도 간 부적 관계(즉, 넓을수록 얇은 관계)를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Baer, 2010; Pollet et al., 2011; Roberts et al.,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크기와 강도 간 상관은 사회 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강도 또한 깊어지는 관계를 보였기에, 대인관계를 보다 잘 꾸려나가는(즉, 넓고 깊은 관계) 개인과 잘 꾸려나가지 못하는(즉, 좁고 얇은 관계) 개인으로 구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크기와 강도 간 상관의 크기가 작을수록(Cohen, 1988)에 머물렀기에 사회 관계망의 크기와 강도가 항상 일정한 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관계망 연구에 있어 크기와 강도 두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 관계망 유형이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술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 번째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일주일 간 연락한 사람의 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분별하거나 과한 크기의 사회 관계망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관계망의 크기와 우울 간 관계를 살펴본 Falci와 McNeely(2009)의 연구 결과, 약 11명까지는 친구가 1명씩 증가할 때마다 우울로부터 더 보호적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11명보다 많아지게 되면 보호적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보고한 일주일 간 연락한 사람의 수가 1명부터 11명까지라 응답한 비율은 39.2%로 약 40%에 해당하였으며, 10명이라 응답한 수가 26명(8.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일주일 간 연락한 사람의 수의 분포가 1.87의 왜도를 보여, 객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에 밀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사회

관계망 크기에 있어 가장 넓은 사회 관계망에 해당하는 6점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17명(5.7%)으로 그 수가 적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 참가자들의 사회 관계망 크기는 아주 넓고 큰 사회 관계망을 포괄하지 못했을 한계를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시간 압박감 범위가 모집단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시간 압박감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시간 압박감의 어느 정도일 때까지는 넓은 사회 관계망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개인에게 이득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압박감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넓은 사회 관계망이 더 이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의 대학생들이 보고한 시간 압박감 수준은 실제 모집단 전체(예컨대, 직장인, 워킹맘)를 대표하지 못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셋째, 시간 압박감의 측정 범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할 때 실제 개인의 소득을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사회 관계망의 크기와 안녕감 간 관계에서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전술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시간 압박감의 스펙트럼이 넓고, 실제 소득이 있는 개인들 및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정규직 근로자, 여성, 25세에서 54세 연령 범위,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및 한 부모 가정이 있으며(Putnam, 2009), 이 중에서도 활발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20-30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본 연구의 결과와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첫째,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은 단기적으로 시간 압박감을 경험하는 개인보다 넓은 사회 관계망으로 인한 역할 긴장(role strain: for details, see Falci & McNeely, 2009, p. 5), 상호호혜성의 부담(reciprocity burden: for details, see Adams & Plaut, 2003, p. 336) 등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시간 압박감을 경험하였는지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만성적인 시간 압박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예컨대, 다자녀 부모, 중간 관리직)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긴 시간동안 시간 압박감을 경험해 온 사람들에게는 시간 압박감의 조절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 관계망이 더 이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이들에게는 넓은 사회 관계망보다 좁은 사회 관계망이 개인의 안녕감 수준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에게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자본으로 지각되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간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넓은 사회 관계망은 곤란한 상황에 대한 위로를 제공하는 정서적인 지지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혹은 Granovetter(1983)의 연구 결과와 같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적 지지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압박감 수준을 측정하고, 객관적 사회 관계망 측정에 있어 최근 일주일 간 연락한 사람의 수를 측정하여, 외생 변수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관계망의 성립, 유지 및 해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단적인 관찰과 자료 수집이 필요하겠다. 예컨대,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의 수가 평소 10명이었던 한 개인이 시간 압박감이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

기에 처했을 때,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는지 혹은 증가하는지, 그 변화 양상을 직접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관계망의 크기와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학문 분야 및 학자들 간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혼용되고 있다(Putnam, 2009).¹²⁾ 이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한계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 및 사회 관계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발전을 위해 그 측정 도구 및 측정 방법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12)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공동체의 단체 생활, 공공 업무의 참여, 공동체 자원봉사 활동, 일상적인 사교 활동 및 사회적 신뢰 등을 측정한다(see Putnam, 2009, pp. 480-487). 심리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에서는 이웃과의 접촉 빈도, 연락 횟수 등을 토대로 사회 관계망의 크기를 측정하기도 하며(e.g., 이민아, 2013), Kahn과 Antonucci(1980)의 Convoy 모델, Oishi와 Kesebir(2012)의 Deep-Tie Index 등 그 방법이 무수히 다양하다.

참 고 문 헌

- 강준만 (2010). ‘빨리빨리’의 문화정치학. 언론과학연구, 10, 47-80.
-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7).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식, 이루지 (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11, 424-433.
- 김동욱, 김수연 (2017, April 04). “인간관계 피로감 ‘관태기’에 빠진 청년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30000000769/3/70030000000769/20170404/83675088/1.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19-39.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 63-95.
- 김종순, 오세숙, 윤소영 (2016). 20-40대 직장여성의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의 관계. 여가학연구, 14, 67-85.
- 김지혜 (2017, September 30). “인간관계에 피로를 느낀다면? ...‘인맥 다이어트’”, 스페셜경제.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52>.
- 류승아, 김경미, 한민 (2014). 문화적 자기관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행복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 177-203.
- 박영주 (2017, April 29). “인맥王 무슨 소용... 인맥 거지 자처하는 현대인들”, 뉴시스 뉴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18_

0014838555&cID=10201&pID=10200.

- 박지혜, 설경옥, 김지혜 (2018).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 경험과 대학생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 125-144.
- 손여진, 양영란, 권혜영, 이윤경, 이진희, 이은미, ... & 조성일. (2001). 일부 농촌지역 성인의 고혈압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학논집*, 38, 72-83.
- 유민봉, 심형인 (2013).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합의이론을 통한 범주의 발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 457-485.
- 유태용, 이기범, Ashton, M. C.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 61-75.
- 윤정, 김정섭 (2017). 대학생의 시간압박감, 자유재량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31, 389-408.
-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한국사회학*, 47, 171-200.
- 이영란 (2006). 상담자의 소진(burnout)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열, 남은영 (2008).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 42, 178-214.
- 이혁 (2017, August 26). “진짜 친구 찾고 싶어요...‘인맥 다이어트’하는 청춘들”,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8251009516138>.
- 조미라 (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한국인구학*, 39, 29-57.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 321-337.
- 차승은 (2011).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과 여가제약. *한국인구학*, 34, 65-

90.

- 천성민, 김병준. (2014). 운동참여와 A/B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와 분노 비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5, 43-53.
- 천의영 (2010). 노인의 사회 연결망 유형과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간호학회지*, 40, 88-98.
- 통계청 (2014). 2014년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 (2016).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1999년~2014년).
- Adams, G., & Plaut, V. C. (2003). The cultural grounding of personal relationship: Friendship in North American and West African worlds. *Personal Relationships*, 10, 333-347.
- Adler, N. E., Boyce, T., Chesney, M. A., Cohen, S., Folkman, S., Kahn, R. L., & Syme, S. L. (1994).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challenge of the gradient. *American psychologist*, 49, 15-24.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 586-592.
- Antonius, R. (2003). *Interpreting quantitative data with SPSS*. London, England: Sage.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CA: Sage.
- Baer, M. (2010). The strength-of-weak-ties perspective on creativity: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 592-601.
- Baumeister, R. F., Brewer, L. E., Tice, D. M., & Twenge, J. M. (2007).

- Thwarting the need to belong: Understanding the interpersonal and inner effects of social exclus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 506-520.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aumeister, R. F., Twenge, J. M., & Nuss, C. K. (2002).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cognitive processes: anticipated aloneness reduces intelligent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817-827.
- Belsky, J., Houts, R. M., & Fearon, R. P. (2010). Infant attachment security and the timing of puberty: Testing an evolutionary hypothesis. *Psychological Science*, 21, 1195-1201.
- Bertman, S. (1998). *Hyperculture: The human cost of speed*. Praeger Publishers.
- Carstensen, L. L. (1993). Motivation for social contact across the life span: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40, 209-254.
- Carstensen, L. L., Isa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 165-181.
- Choi, S. (2018). *Pathogen threat, social networking strategy, and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Chou, A. F., Stewart, S. L., Wild, R. C., & Bloom, J. R. (2012). Social

- support and survival in young women with breast carcinoma. *Psycho-Oncology*, *21*, 125-133.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arlbaum.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nath, J., & Boyd, D. (2004). Public displays of connection. *BT Technology Journal*, *22*, 71-82.
- Donnellan, M. B., Oswald, F. L., Baird, B. M., & Lucas, R. E. (2006). The mini-IPIP scales: tiny-yet-effective measures of the Big Five factor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essment*, *18*, 192-203.
- Dunbar, R. I. (2014). The social brain: Psychological underpinn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structure of organiz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 109-114.
- Duncan, G. J., Magnuson, K., & Votruba-Drzal, E. (2017). Moving beyond correlations in assessing the consequences of pover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8*, 413-434.
- Ellis, B. J. (2004). Timing of pubertal maturation in girls: an integrated life history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30*, 920-958.
- English, T., & Carstensen, L. L. (2014). Selective narrowing of social networks across adulthood is associated with improved emotional experience in daily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 Development, 38*, 195-202.
- Evans, G. W. (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ist, 59*, 77-92.
- Evans, G. W., & Kim, P. (2007). Childhood poverty and health: cumulative risk exposure and stress dysregulation. *Psychological Science, 18*, 953-957.
- Falci, C., & McNeely, C. (2009). Too many friends: Social integration, network cohesion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Social Forces, 87*, 2031-2061.
- Fredrickson, B. L., & Carstensen, L. L. (1990). Choosing social partners: How old age and anticipated endings make people more selective. *Psychology and Aging, 5*, 335-347.
- Fung, H. H., Carstensen, L. L., & Lutz, A. M. (1999). Influence of time on social preferences: Implications for life-span development. *Psychology and Aging, 14*, 595-604.
- Fung, H. H., Lai, P., & Ng, R. (2001). Age differences in social preferences among Taiwanese and mainland Chinese: The role of perceived time. *Psychology and Aging, 16*, 351-356.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I. Mervielde, I. Deary, F. D. Fruyt, & F. Ostendorf(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 7, pp. 7-28). Tilburg, the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201-233*.

- Griskevicius, V., Ackerman, J. M., Cantú, S. M., Delton, A. W., Robertson, T. E., Simpson, J. A., ... & Tybur, J. M. (2013). When the economy falters, do people spend or save? Responses to resource scarcity depend on childhood environments. *Psychological Science, 24*, 197-205.
- Griskevicius, V., Delton, A. W., Robertson, T. E., & Tybur, J. M. (2011). Environmental contingency in life history strategies: the influence of morta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on reproductive t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241-254.
- Griskevicius, V., Tybur, J. M., Delton, A. W., & Robertson, T. E. (2011). The influence of morta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on risk and delayed rewards: a life history theory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1015-1026.
- Grühn, D., Sharifian, N., & Chu, Q. (2016). The limits of a limited future time perspective in explaining age differences in emotional functioning. *Psychology and Aging, 31*, 583-593.
- Hamermesh, D. S., & Lee, J. (2007). Stressed out on four continents: Time crunch or yuppie kvet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 374-383.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이형권 편). 경기: 신영사. (원본출간년도: 2013)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ynes, S. G., Levine, S. O. L., Scotch, N., Feinleib, M., & Kannel, W. B. (1978). The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factors to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Framingham study: I. Methods and risk factor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7*, 362-383.
- Haushofer, J., & Fehr, E. (2014). On the psychology of poverty. *Science*, *344*, 862-867.
- Hemingway, H., & Marmot, M. (1999). Psychosocial factors in the aetiology and prognosis of coronary heart disease: systematic review of prospective cohort studies. *BMJ*, *318*, 1460-1467.
- Hicks, R. E., & Mehta, Y. P. (2018). The Big Five, Type A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Studies*, *10*, 49-58.
- Hill, R. A., & Dunbar, R. I. (2003). Social network size in humans. *Human Nature*, *14*, 53-72.
-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 227-237.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300.

- Kaplan, H. S., & Gangestad, S. W. (2005). Life history theory and evolutionary psychology. In D. M. Buss (Ed), *The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pp. 68-95).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Kazmi, R., Amjad, S., & Khan, D. (2008). Occupational stress and its effect on job performance. A case study of medical house officers. *Journal of Ayub Medical College of Abbottabad, 20*, 135-139.
- Kim, J. (2015). *Deep ties versus weak ties: A life history approach to social network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92-1004.
- Lang, F. R., & Carstensen, L. L. (1994). Close emotional relationships in late life: Further support for proactive aging in the social domain. *Psychology and Aging, 9*, 315-324.
- Lang, F. R., & Carstensen, L. L. (2002). Time counts: Future time perspective, goals, and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y and Aging, 17*, 125-139.
- Levine, R. V., & Norenzayan, A. (1999). The pace of life in 31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178-205.
- Litwin, H. (2003). Social predictors of physical activity in later life: The contribution of social-network type [Abstract].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11*, 389-406.

- Litwin, H., & Shiovitz-Ezra, S. (2006). Network type and mortality risk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46*, 735-743.
- Litwin, H., & Shiovitz-Ezra, S. (2010). Social network typ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mericans. *The Gerontologist, 51*, 379-38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sden, P. V., & Campbell, K. E. (1984). Measuring tie strength. *Social Forces, 63*, 482-501.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397-422.
- McPherson, M., Smith-Lovin, L., & Brashears, M. E. (2006). Social isolation in America: Changes in core discussion networks over two deca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 353-375.
- Mittal, C., & Griskevicius, V. (2014). Sense of control under uncertainty depends on people's childhood environment: A life history theory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 621-637.
- Nie, N. H. (2001). Soci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Internet: Reconciling conflicting finding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420-435.
- Oishi, S., & Kesebir, S. (2012). Optimal social-networking strategy is a function of socioeconomic conditions. *Psychological Science, 23*, 1542-1548.

- Perlman, B., Hartman, A. E., & Lenahan, B. (1984). Validation of a Six Item Questionnaire for Assessing Type A Behavi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143-160.
- Petticrew, M. P., Lee, K., & McKee, M. (2012). Type A behavior pattern and coronary heart disease: Philip Morris's "crown jewe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 2018-2025.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 771-784.
- Pollet, T. V., Roberts, S. G., & Dunbar, R. I. (2011). Extraverts have larger social network layer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 161-169.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 (2009). 나 홀로 볼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정승현 역). 서울: 페이퍼 로드.
- Roberts, S. G., Dunbar, R. I., Pollet, T. V., & Kuppens, T. (2009). Exploring variation in active network size: Constraints and ego characteristics. *Social Networks*, 31, 138-146.
- Robinson, J. P., & Godbey, G. (1998). Trend, gender, and status differences in Americans' perceived stress. *Society and Leisure*, 21, 473-489.
- Rook, K. S.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097-1108.
- Roxburgh, S. (2004). "There Just Aren't Enough Hours in the Day':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Time Press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 115-131.
- Rudd, M. (2018). Feeling Short on Time: Trends, Consequences, and Possible Remedi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6, 5-10.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ulte, B. (2015). 타임 푸어: 항상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을 위한 일 가사 휴식 균형 잡기 [*Overwhelmed: How to work, love, and play when no one has the time*]. (안진이 역). 서울: 더퀘스트 길벗.
- Szollos, A. (2009). Toward a psychology of chronic time pressu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review. *Time & Society*, 18, 332-350.
- Teuchmann, K., Totterdell, P., & Parker, S. K. (1999). Rushed, unhappy, and drained: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relations between time pressure, perceived control, mood, and emotional exhaustion in a group of accountant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4, 37-54.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56-66.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058-1069.
- Uchino, B. N. (2006). Social support and health: a review of physiological processes potentially underlying links to disease outcom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9, 377-387.
- Weber, A., & Jaekel-Reinhard, A. (2000). Burnout syndrome: a disease of modern societies?. *Occupational Medicine*, 50, 512-517.
- Wellman, B. (2007). Challenges in collecting personal network data: The nature of personal network analysis. *Field Methods*, 19, 111-115.
- Zhong, C. B., & Leonardelli, G. J. (2008). Cold and lonely: Does social exclusion literally feel cold?. *Psychological Science*, 19, 838-842.

ABSTRACT

The Effect of Early Adulthood Social Network Size on Well-Being: The Moderation effects of Time Pressure and Economic Status

Hyebin Cheo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Human beings are social animals, and numerous studies have shown the importance of social belonging and the negative impact of social rejection, loneliness, and so on.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optimal social network size according to individual differences (e.g., residential mobility, economic resources). The research presented herein examined the effect of early-adulthood social network size on well-being relative to an individual's time pressure and economic status. It was predicted that the positive effect on well-being resulting from large social network would be small when the individual's time pressure is higher and economic status is lower. Fourth-year undergraduate students ($N = 296$) reported their social network sizes, time pressure, economic

status and well-being through online survey. Results revealed a 3-way interaction between objective social network size, time pressure and economic status which was marginally significant on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one of the six dimens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p = .050$). However, the moderation effect was in opposite to that hypothesized: among individuals with higher levels of time pressure and lower economic status, the level of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was higher when they had a larger social network size. Results suggest that people who are in their early adulthood stage consider their social networks as social capital which produces resource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Keywords: social network size, time pressure, economic status, well-being

부 록

부록 1. 연구 질문지

부록 1-1. 시간 압박감

부록 1-2. 경제적 지위

부록 1-3. 사회 관계망

부록 1-4. 안녕감

부록 1-5. 성격 5요인 및 A유형 성격

부록 1. 연구 질문지

부록 1-1. 시간 압박감

다음은 대학생들이 현재 경험하는 정서와 상태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께서 평소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정해진 답은 없으니, 평소 귀하께서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내가 많은 일을 다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2. 나는 시간 때문에 압박감을 느낀다.						
3. 나는 서두를 때가 종종 있다.						
4.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할 때, 조급하다고 느낀다.						
5. 나에게는 나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						
6.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느낀다.						
7. 나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편이다.						
8. 나는 늘 시간에 쫓긴다.						
9. 나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부록 1-2. 경제적 지위

<어린 시절의 경제적 지위>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들은 귀하의 어린 시절 경험 및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나의 어린 시절에 우리 가족은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2. 나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3. 어린 시절 나는 학교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 산다고 느꼈다.						

<현재 객관적 경제적 지위>

- 귀하의 월 평균 가계 총 소득(가족 구성원 모두의 총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50만원 이하
- ② 151 ~ 250만원
- ③ 251 ~ 350만원
- ④ 351 ~ 450만원
- ⑤ 451 ~ 550만원
- ⑥ 551 ~ 650만원
- ⑦ 651 ~ 750만원

- ⑧ 751 ~ 850만원
- ⑨ 851만원 이상
- ⑩ 모름

<현재 주관적 경제적 지위>

- 아래의 사다리 위에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위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사다리 칸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위치할 것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사다리 칸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사람들이 위치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 귀하께서는 본인이 위의 사다리 칸 중 어느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의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

부록 1-3. 사회 관계망

<주관적 사회 관계망>

다음은 귀하의 현재 대인관계 종류를 묻는 질문입니다. 제시되는 설명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들마다 서로 각기 다른 종류의 대인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종류는 각각의 특성을 지니기에 타인에게 판단되거나 평가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문항은 귀하께서 현재 이루고 있는 대인관계 종류를 묻는 질문입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정해진 답은 없으니,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현재 어떠한 종류의 대인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1	2	3	4	5	6
넓은 대인관계				좁은 대인관계

1	2	3	4	5	6
깊은 대인관계				얕은 대인관계

<객관적 사회 관계망>

3. 귀하께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연락망은 무엇입니까?

- ① 전화 및 문자 ② 카카오톡 ③ 기타 SNS (예: 페이스북 메시지 등)

4. 해당 연락망에는 총 몇 명이 속해있습니까? 해당 연락망을 확인하신 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명

5. 이 중 지난 일주일 동안, 해당 연락망을 통해 귀하와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연락한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명

6. 이 중 몇 명이 아래 관계에 해당합니까?

귀하의 가족: ()명

귀하의 친구: ()명

귀하의 지인: ()명

기타: ()명

부록 1-4.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께서 평소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정해진 답은 없으니, 평소 귀하께서 느끼고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현재의 내 활동반경(생활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다.						
3.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4.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5.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6.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들다.						
7.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8.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9.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10.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11. 과거에는 나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으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낭비였던 것 같다.					
12. 내 주변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다.					
13.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14.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15.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의지대로 하는 편이다.					
16.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17. 나 자신과 인생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8. 가끔 매일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19.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20.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					
21.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22. 나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23.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24.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25. 나는 전반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돈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26.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					
27. 대부분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28.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29.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30.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제 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31.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32.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33.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34.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35. 나는 나만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36.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면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37.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38. 나는 내 친구들을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9. 과거를 돌이켜 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40.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41.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에 버렸다.					

42.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43. 나는 남들의 기준보다는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나 자신을 평가한다.					
44. 내 가족과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꾸려올 수 있었다.					
45. 이제껏 살아 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46.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 자아수용: 3, 8, 12*, 19, 24, 26*, 39, 42
- 긍정적 대인관계: 4*, 9*, 13, 20*, 27*, 38, 46*
- 자율성: 5, 10, 15, 21*, 29, 33*, 36*, 43
- 환경에 대한 지배력: 1, 6*, 14, 16*, 25, 30, 40*, 44
- 삶의 목적: 7*, 11*, 18*, 23*, 28, 32, 35
- 개인적 성장: 2*, 17, 22*, 31, 34*, 37, 41*, 45*

(*은 역문항)

<대인관계 만족도>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의 대인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6
전혀 만족하지 못함	대체로 만족하지 못함	약간 만족하지 못함	약간 만족함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부록 1-5. 성격 5요인 및 A유형 성격

<성격 5요인>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정해진 답은 없으니, 평소 귀하께서 느끼고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						
1.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한다.						
2.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한다.						
3. 집안일을 즉시 해치운다.						
4.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5. 상상력이 풍부하다.						
6.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7.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8. 물건들을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잘 잊는다.						
9. 거의 언제나 느긋한 편이다.						
10. 추상적인 개념에는 별 관심이 없다.						
11. 사교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다.						
12.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						

13.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14.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5.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16.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17.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18. 일을 엉망으로 만든다.						
19.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20. 상상력이 좋지 못하다.						

- 외향성: 1, 6*, 11, 16*
- 친화성: 2, 7*, 12, 17*
- 성실성: 3, 8*, 13, 18*
- 신경증: 4, 9*, 14, 19*
- 지성/상상(개방성): 5, 10*, 15*, 20*

(*은 역문항)

<A유형 성격>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정해진 답은 없으니, 평소 귀하께서 느끼고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경쟁적이다.				

2. 대개 시간에 쫓기는 편이다.				
3. 타인을 지배하거나 분위기를 이끄는 편이다.				
4. 모든 것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심이 있다.				
5. 아주 급하게 식사를 한다.				

평소 귀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마칠 무렵 어떠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자주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는다.		
2. 일과를 끝낸 후에도 일에 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3. 일을 하다 보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마음이 편치가 않으며 만족하지 못한다.		
5.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때 안절부절 못한다.		